



서울大同窓會報

총동창회 지표 : 참여·협력·영광

<http://www.snua.or.kr>

2003년 7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304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발행인 林光洙 / 편집인 孫一根 / 편집주간 許瑄 /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①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FAX : 703-0755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미국 LA에서 재미동창회 제12차 평의원회의가 열렸다. (사진 위 좌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평의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林光洙회장, 워싱턴DC지부에 순회해 전달, 본회 순방단 및 평의원 글드대희, 재미동창회 7대 집행부 임원)

미국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관약춘추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창립 12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12차 전국 평의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첫날의 심포지엄에서는 여러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튿날의 평의원회의에서는 7대 집행부(회장 吳興祥동문)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2005년의 차기 회장에 李英默동문을 선출하였다. 그 날 저녁 「미주판악후원의 밤」에서는 환영만찬을 비롯한 여러 행사 뒤에 李塚鎔교수의 「미국의 대한민국도 정해」에 관한 특별 강연이 있었다.

이처럼 사흘 간에 걸쳐 재미동창들은 흔히 하는 행사 외에 재외 한인 사회에서의 서울대인의 역할과 조국이 처한 현실의 이해 증진을 위한 기회를 가졌으며, 그밖에도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로 즐겁고 우애 있는 모임을 가졌다. 더구나 서울 총동창회의 금년

평의회회장, 林光洙회장을 비롯한 일급 분의 간부들과 모교의 鄭明熙부총장과 네 명의 보직교수들이 순방단을 구성하여 회의 기간 중 재미동창들과 함께 동창회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격려하고 축하하였다.

돌이켜 보면, 1991년에 창립된 미주총동창회는 각지에 있는 동창들의 결속과 단합을 강화하고, 꾸준

재미동창회의 미래

히 활성화와 재정자립도를 높여 왔으며,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모교와 후진을 위한 1백만불 기금」을 세우는 등 수많은 동문들이 열정과 꿈을 안아온 것이다. 이번 평의원회의의 기간을 통하여 미주 동창들의 큰 사업장은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사항은 ...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의 긍지를 높이는 역사

적인 이정표가 될 것」(李龍洛회장)이라는 데 잘 나타나 있다.

한편, 7월 1일자로 재미동창회의 집행부와 동창회보의 발행권이 시카고지부에서 남가주지부로 이관되었는데, 신임 吳興祥회장은 「지난 2년 간 총동창회를 이끌어 동문들의 화합을 위해 봉사해 주신 시카고지부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으며, 새 임원들을 「2년 간 함께 봉사해줄 고마운 친구들」이라고 소개했다. 참으로 아름다운 「정권 교체」이며 「수도이전」이다. 재미동창회는 앞으로 동창회보를 잡지 형태로 활성화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젊은 동문들의 모임을 적극 지원하는 등 결속을 강화할 것이라 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재미동창회의의 미래는 밝다.

우리는 6대 집행부의 그 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며, 새 7대 집행부의 위임을 축하하고 재미총동창회의의 새로운 도약을 크게 기대하는 바이다.

(熙)

만든 논설위원 金哲洙, 金昌익, 朴世熙, 林炯斗, 崔吉林, 李炯均, 南仲九, 金鎮錫, 金好俊, 宋鎮赫, 丘月煥, 洪性萬, 朴明珍, 李成俊, 安炳燦, 李元龍, 安國正, 사람 李慶衡, 金鍾勳, 金仁丰, 徐玉植, 高永才, 嚴基永, 朴時龍, 姜天錫, 朴聖姬 편집장 安興燮 편집기자 朴宰亨, 李智媛, 鄭珉瑞 광고부장 金千鶴

우리 나라는 지난 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에 도달한 후 7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후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일본의 경우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도약하는데 5년 남짓 걸렸고 유럽의 아일랜드는 7년 정도 걸린 것과 비교하면 우리 나라는 「마(魔)의 1만달러」 고지에서 너무 오랫동안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경제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 대한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단기간 내에 지루한 정체에서 벗어나 국민소득 2만달러 꿈을 실현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세계에서 유래 없는 고도성장을 지속해 단숨에 1만달러 고지에 오른 우리 나라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는 원인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떠오르는 것은 오로지 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지상과제였던 개발연대 압축성장의 부메랑 효과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면 된다」 「잠삼아 보자」는 무지마치한 개발연대의 구호와 삶의 방식은 가난에서 벗어나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잃은 것도 많다. 수단과 절차, 방법이 무시되고 오로지 열마를 벌였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가 승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말았다. 30년간의 개발연대를 거치는 사이 물질이 유일한 가치로 자리잡고 돈이 전부라고 믿는 물질의 광신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한 때 유행하던 「정치가 쏜 정의가 밥 먹여 주냐」는 비아냥만큼 파헤쳐진 정선



국회

압축성장의 부메랑



朴 世 偉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통해 의식의 변화작업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1만달러 고지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것은 개발연대 압축성장의 부메랑 때문인지 모른다.

문화를 잘 대변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권이 부패적질이 공약의 단골메뉴로 자리잡고 의원취지를 거치면서 이른바 국제기패는 더욱 기세를 부리고 있다.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부정부패가 체질화됐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를 보고 있으면 뇌물 없는 교육도, 행정서비스도 받기 어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기업부패와 비리는 또 어떤가. 천문학적인 회계부정이 잇따르고 기업부패의 결과물인 풍차들 등 퇴폐향락산업은 불황을 모르고 번창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 같은 개발연대의 후진적인 의식과 관행을 고치지 않으면서 2만달러 꿈을 꾸는 것은 주체념은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 정치, 정의와 같은 올바른 가치관이 없이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부패와 비리를 저질러서라도 돈을 챙기고, 그러한 돈으로 부동산투기나

일삼고 퇴폐향락에 탐닉하는 것을 보았으로 삼는 권민자본주의가 선진경제로 갈 수 없었지만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전정으로 2만달러의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개발연대의 우선 나쁜 유산을 청산하고 자본주의와 청교도 정신을 겸득시킨 마스케버의 교민을

(본보 논설위원)

동문 길림

「의례」와 현대인의 삶

의례를 지킬 줄 안다는 것은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다. 아득한 옛날부터 관혼상제는 인륜지대사라고 일컬어 왔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의식을 통해 의례를 지키면서 멋있게 산다. 의식은 원래 질서가 결합여지는 것이지만, 산업사회에 들어와서부터 거국적이거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공식행사(의식)인 경우에 의례는 참여자의 집중 속에서 엄숙하게 진행되고 잔치는 생략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잔치 없는 의식은 기계적으로 형식화되고 참석자들은 당초에 의식의 의의를 실감할 수 없게 되며 심지어 지겨움이나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왜 우리는 결혼식과 장례식을 거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런 의식을 거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원래 의식이란 거행하는 사람이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구성원으로 있는 공동체, 즉 이웃사람, 친척, 친지들이 공동으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전통적인 관례이다. 잔치는 원래 마을축제였었다. 그래서 비용 때문에 제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 자망자치단체는 뒤늦게나마 합동 결혼식을 거행하기도 한다.

인간은 잔치를 치르고 잔치에 참여하면서 비로소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실감하고 연대의식(유대감)을 갖는다. 우리는 잔치를 통하여 친지를 만나고 구정을 새롭게 하고 과거의 기억을 현재에 되살려 받아들이고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공고히 할 수 있다. 어디 그런인가? 잔치에는 관용과 용서와 화해가 있고 사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뒤따른다. 다시 말해서 잔치는 현재의 삶을 긍정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해준다. 잔치에는 배불리 먹고 마시는 음식, 즉 성찬이 준비되고 풍류가 뒤따른다. 엄숙한 종교의식, 즉 전례도 원래 이 풍류를 세련되게 규격화한 것이

다. 그러나 이 풍류는 반드시 절도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풍류나 잔치는 정신나간 「미친 짓거리」가 되고 만다.

그러나 매사에 이익을 따지는 공리적인 사회에서는 의식은 경시되고, 관청과 학교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의식은 아무런 소득도 없고 손해만 보는 짓거리로 간주되고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장사꾼의 폭리에 빛난치가 되고 의례의 본질인 질서와 평온이 사라져 버렸다. 종교의식에서도 돈과 잔치와 정신나간 사람이 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대기만 의식을 지켜워하고 기피하려고 냉담해진다. 그 결과 우리는 의례를 모르는 무례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현대인의 사회생활은 일에 쫓기고 돈과 명예에 사로잡혀 영일이 없는 긴장의 연속에서 산다. 긴장의 연속은 온갖 질병의 원인이다.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긴장 완화이다. 인생을 구가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즐길 수 있는 잔치를 벌이는 것이야말로 긴장완화의 지름길이다.

의례란 원래 사람을 괴롭히거나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공동생활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다. 잘못된 허례의식은 과감히 청산되어야 하거나 사람의 품위를 높여주는 의례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학교부터 의례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의 입학식과 졸업식, 교수와 총장의 취임식과 퇴임식, 교복식, 사은회 등이 제대로 거행되어 모든 구성원의 명예를 양양해 주어야 한다. 의례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사람다운 길이기 때문이다.



李 善 偉 (60년 文壇大率)
모교 국민윤리교육과 명예교수

林光洙회장 Keynote Speech

<요지>

李龍浩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李龍浩회장님께서 재미충동창회를 지난 2년 동안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재미동창회보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시며, 동문들의 접촉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차기 회장으로서 봉사를 하시기 될 吳興祚회장님과 임원진께서도 어느 때보다 중대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으셔서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었던 캠퍼스(Campus)의 낭만을 이곳 타향에서 재현하는데도 최대 역점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충동창회의 도약과 변명을 위해 본국 충동창회도 성심성의를 다해 도움을 드려 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교의 국제 과학논인 인문색인(SCI) 지수가 98년 세계대학 중 94위에서 2000년 55위, 2001년 40위로 부상한데 이어 지난해는 34위로 올라섰습니다. 명실상부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종합연구대학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본국 충동창회에서도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동창회와 산관을 관악캠퍼스 내에 신축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모교측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모교 교수회관 65동 자리를 확정적으로 선정하고 서울특별시 주요산 경관 풍치보전계획에 의한 고도제한 등 건축 관련사항을 행정당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관악회의 특기 및 기금장학금은 2001년까지 총 22억2천5백여 만원의 장학금을 운영했으나, 2002년에는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전년보다 57.5%가 넘는 24개 특장학회를 유치, 13억8천만원의 기금증대를 기하여 수입이자 포함 총 37억6천6백8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본회의 총 운영기금은 약 91억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특장학회를 중심으로 더 많은 실적 기양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서울대인의 Human Network 확립으로 모교 지원 강화와 동창회 활성화의 기초가 될 「서울대 인명록」 발간을 통해 서울대인이 하나로 결속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대인이 이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별들은 잘 보이지 않음지 모르나 동문들이 떼지어 력성을 보이면 큰 빛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서울대인은 조국 앞에 무한책임이 있다”
“서울대가 바로 새아 나라가 산다”는 것이 바로 우리 충동창회의 Motto입니다.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 한국 최고의 서울대 동문들이 항도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林光洙회장 만찬사

<요지>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하나의 귀중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동창회의 발전과 동문들에 대한 애정을 온소 실천한 다섯 분의 동문께 공로패를 드려 헌신적인 업적을 기리고 동창회 발전에 귀감으로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섯 분은 재미충동창회 朴光洙 초대 회장님과 姜漢祥 2대 회장님, 뉴욕주부 동창회 韓昌韓 전임 회장님, 시카고주부 동창회 韓在殷 전임 회장님, 남가주주부 동창회 任格均 전임 회장님입니다.

지금 모교에서는 많은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세계속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특히 모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회에도 전파시키기 위해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을 설립하여, 교직원들이 발명한 각종 기술이나 제품을 관리하면서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대학과 산업체간의 유기적 관계를 더욱 증대시켜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모교의 이러한 변화 의지에 부응하여 지난 4월 23일 본국 충동창회의 적극적인 주도로 모교를 지원하기 위해 전·현직 동문 연번인 2천5백여 명의 보인인 「관악연인회」를 창립하였습니다. 관악연인회회는 모교의 도약을 위해 적지 않은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주 동문 여러분분의 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중순 한국의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그간 철저히 해대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토인비(Toynbee)가 지적했듯이 도전에 대해 어떻게 응전하느냐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모국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서울대 동문들이 숭신수복하여 조국앞에 무한책임하는 자로써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미동창회 吳興祚신임회장

“동창회보 색인·재정 자립 이를 터”

吳興祚(61년 歲大幸·오홍조)와 원장)동문은 지난 7월 1일 재미동창회 7대 회장에 취임해 2년 임기를 시작했다. 吳興祚동문으로부터 재미동창회 운영계획, 동문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취임 소감-

『2001년 시카고에서 열린 제10차 평의회의에서 차기 회장으로 당선된 후 동창회와 동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신념들에서 이뤄놓으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좋은 친구들의 협조를 얻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동문들에게 봉사하는 보람찬 2년을 보내고자 합니다.』

-동창회 활성화의 구체적 방안-

『연락처 등이 파악되지 않는 동문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이 회원들을 함께 고민하고,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또 전자형태의 회보를 발간하여 광고유치에도 노력해 재정 자립을 이끌어 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를 발간하여 광고유치에도 노력해 재정 자립을 이끌어 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동문 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

『동창회보로 통해 “자랑스런 서울대인”을 선정해 알리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동문의 우수성과 지식을 동창회보와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하고 발전시켜 “싱크탱크(Think Tank)”를 조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포 사회는 물론 조국과 모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적 봉사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조직을 새롭게 구성했는데.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처와 동창회보 제작에 힘을 쏟는 신문편집위원회, Web편집위원회로 이원화했습니다. 동문들의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광고 유치로 재정 자립을 이루기 위해 동창회보 색인을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동문들에게 한 마디-

『동문들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훌륭한 학교에서 적은 비용으로 훌륭한 교수진 밑에서 공부하는 혜택을 입었다고 할 수 있는 데요. 이에 보답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미동창회는 “모교와 후진을 위한 1백만불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40여 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면서 동문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문들에게 봉사합으로써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합니다.』

吳興祚는 재이한인스쿠버협회 초대 회장, 재미한인교회와사회 회장, 남가주주부 동창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1976년부터 LA에서 치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75학번 이후 모임 「관악연대」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한 교류

관악연대(위원장 鄭妍珍·사진)는 남가주주부 동창회(회장 郭戴)이 소속된 조직으로 75년 이후 입학한 젊은 동문들의 모임이다.

지난 7월 1일 재미동창회 본부가 시카고에서 LA로 이관되면서 관악연대는 7대 집행부의 정식 조직으로 편입됐다.

관악연대가 결성된 것은 지난 2002년 초로, 남가주주부 동창회 모임에 참석하는 20대 동문은 물론 30, 40대 동문들의 수가 손에 꼽힐 정도로 미미한 상황에서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함께 할 필요가 있었다.

지난해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했고, 올해초 鄭妍珍(81년 人文大)위원장, 李耕勳(89년 社會大)부위원장으로부터 구성된 제2기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활동이 본격화됐다.

한달 여의 노력 끝에 지난 2월 남가주주부 동창회 정기대회에서 관악연대 동문 30여 명이 참석하는 성과를 냈다. 이전에 겨우 3~4명이 참석할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성장이었다.

지난 5월 23일 7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연대의 첫 행사인 “관악연대 동문의 밤”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오프라인은 물론 재미충동창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에서도 활발

하게 만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뉴스레터” 발행을 시작했다.

鄭妍珍위원장은 “관악학번들의 꿈과 패기를 하나로 잇는 가교역할과 동시에 미주지역에서 서울대인들이 보람 있는 일을



더욱 많이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데 밀려들어 되겠다.”고 말했다. (鍾)

미술작품

孫喜玉作



「기억속으로」, 종이·먹·채색, 53×54cm, 2002

<작가약력>

- ▲72년 모교 비대 회회과 졸업
- ▲79년 대학원 졸업
- ▲개민전 4회
- ▲독일 뉘른베르그 문화공 초대전
- ▲국제 여성미술대전 초대작가전
- ▲새천년의 대한민국의 희망전

- ▲수묵화·새천년의 모금전
- ▲자민·생생과 소망
- ▲2002 새해 연극·부채그린전
- ▲남북협력미술축전
- ▲제19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한국대·동국대 감사 역임
- ▲현재 한국미술, 한국전 미술가협회, 새미술, 비상회 회원

전장을 지킵시다

임플란트, 의치가 필요 없다

치아 수복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결과, 인간의 자연 치아의 가장 가까운 성격을 지닌 인공치아를 매식하는 임플란트(Implant) 치료가 탄생하게 됐다.

임플란트 수술은 치아가 빠진 부분에 Titanium 금속으로 만들어진 인공치근을 턱뼈에 매식하여 뼈에 고정시킨 후 이것을 이용해 치아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다른 치아는 전혀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본래의 치아와 가장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틀니는 착용감이 좋지 않고 사용 중에 통증이 있으며, 식사와 대화 중에 빠져버릴 우려가 있지만 임플란트는 틀니보다 씹는 힘이 훨씬 강하고 고정시키기 때문에 씹는 기능이 향상되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어 대인관계에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 또한 인접한 자연치아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자연치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장점이 있다.

임플란트 시술 방법은 국소 마취 후에 잇몸을 절개하고 치골조직을 노출시킨 다음 턱뼈에 구멍을 뚫고 인공치근(임플란트)을 박는다. 잇몸을 봉합한 후 3~6개월 후에 다시 잇몸을 절개해 인공치근 위에 연결기둥을 연결시키고, 기둥 위에 보철물(가공치아나 틀니를 얹어 놓는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성공률은 95%에 달한다. 최근 들어 인공치아의 재료가 발전하고



安承遠(78년 齒大卒)
치과교원장

이식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성공률은 더욱 향상되고 있다. 임플란트의 효용성은 자연치아의 씹는 힘이 1배라면 인공치아는 60~95%에 가깝다. 틀니는 20% 안팎이다. 임플란트는 잇나 8개, 아랫나 6개 이상이 돼야 자연치아와 같은 지지력을 갖추게 된다.

임플란트가 자리잡는 데도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려 편만한 환자는 치료가 지치는 경우도 적잖다. 1차 수술 후 3개월 이상은 제대로 씹을 수 없으며 틀니를 착용해야 한다. 이 기간에 보조 임플란트를 박아놓으면 씹는 데 지장이 없으나 그만큼 추가비용이 든다.

치아 상실과 불편한 의치로 인해 상심해 있는 사람들은 임플란트 수술을 통해 기능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심미적으로도 아름다운 인공치아를 가질 수 있게 돼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보다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연락처 : 572-2875)

추억의窓

이화동 복개천 시궁창 냄새 이제 鄉愁가 돼

모교에서 배운 실력, 유학시절서 더욱 발휘

李大衡(62년 法大卒)이대법원법학교육원 원장

승리는 도전과 시련 없이는 얻어질 수 없고, 설사 시련을 극복했다고 해서 그런 영광이 아무에게나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서울대인들은 용기와 인내, 지혜와 성실성, 족복과 행운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나는 감히 말하고 있다.

우리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은 6·25 전쟁의 흉흉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고, 대중적 빈곤과 정치적 부패,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해 있던 시기였다.

3학년 때 4·19 혁명이 있었으며 4학년 때에는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 졸업 후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법대생이었던 우리는 학점을 따기 위한 수업 외에도 고시준비라는 또 다른 중압감 때문에 대학생으로서의 여유와 낭만 같은 것을 즐기지 못했다.

5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들의 대학생활이 어떠했는지 고갈(高閣)에 반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상적으로 접해 했던 그 시절의 사실들, 예를 들어 종로5가 버스정류장의 혼잡한 인파, 이화동 복개천의 시궁창 냄새(이제는 향수를 느끼게 되지만), 이른 봄 학교 주변의 섯노란 개나리, 낡은 벽돌건물의 강의실, 비좁은 교정과 초라한 벤치들, 이런 정경들이 단편적으로 떠오른 따름이다.

사실이나 환경만으로는 서울에서도 판짜에 가까운 열악한 조건들이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꿈을 키웠고, 그 곳을 떠난 후에도 서울

대 출신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았다.

수많은 법조인들이 이 낡은 강의실을 거쳐 나왔으며, 의학, 교육, 금융, 문화 등등 사회 각 분야에서 움직일 수 없는 정상의 위치를 지켜왔다.

필자는 직업상 이유로 프랑스, 아프리카,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

프랑스 유학시절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같이 공부했지만 대학시절에 갈고 닦은 지성과 학구열이 어느 나라, 어느 대학 출신과 견주어도 결코 뒤떨어질 것이 없다는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 대학에 입학해 었던 모습으로 만났던 학우들 중 상당수가 天壽을 다하지 못하고 타계했다.

몇 년만에 만나는 동창들의 얼굴이 완연히 노인의 모습으로 변해 버린 엄연한 현실 앞에

『아, 우리도 늙었구나』하는 탄식을 감할 수 없다.

서울대학교가 하나의 숲이라면 수많은 서울대인들의 영혼이 숨쉬고 있는 토양을 바탕으로 무성히 숲이 되어 지구상의 전인류에게 신선한 공기를 제공할 수 있는 숲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말고 정진하여 자신이 속한 가정과 사회, 더 나아가서 지구상의 인류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졸업식 기념사진.

Noblesse
Oblige

불우 환자 돕기 「함춘후원회」 金柄國회장

병원 직원들과 함께 자선바자회·1일 찻집 열어

“마음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해결해드립니다”

『人不親이든 反其仁하 治人不治어 反其智하 禮人不禮이든 反其敬하니라. 또 行有不得者이든 待反求諸己나 其身이 正而天下 歸之니라. 평자는 남을 사랑하는데 천해지지 않을 때는 자신의 인자함이 모자란 것은 아닌지 돌아켜보고, 남을 다스리는 것은 다스려지지 않을 때는 자신의 지혜를 생각해보고, 남을 예우하는데 답례가 없으면 공격하는 태도를 돌아켜보라고 했으며, 또 성심 성의껏 했는 데 얻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모두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그 자신이 바르면은 천하가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남을 탓하기 이전에 내 주변에서, 가까운데서 뭔가 부족한 것은 없는지 늘상 생각해오면 중 모교병원에 계시는 훌륭한 선배님들과 동료 교수, 직원들과 뜻을 모아 우리와 매년 마주치는 이곳 환자들을 지원하는 함춘후원회를 지난 1992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함춘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金柄國(70년 金大卒·모교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동반은 함춘후원회 창립 멤버로서 맹자의 말처럼 내 주변을 돌아보고, 가까운 데서 조금마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금동문은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이 병원에 오기까지의 과정과 병원에서 불편한 사항, 치료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작은 해결사’ 역할을 하는 의료사회사업실장을 오랫동안 맡기도 했다. 그래서 함춘후원회 사무실도 의료사회사업실에 자리잡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국가 중앙병원이라는 의미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처음 시골을 떠나 도시로 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곳까지 오는 방법을 모르



1993년 함춘후원회 창립 멤버들과 함께 (좌로부터 첫 번째 金柄國)

거나, 연고지가 없어 어디서 며칠을 보내야 할지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 환자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파를 구하지 못해 애매우는 가족들, 치료비가 없어 하루 이틀 병실에 계속 누워있는 환자들... 『병원에는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곳만은 아닙니다. 의료사회사업실에는 주로 이러한 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상담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은 기꺼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주로 학교를 돌면서 현혈액페인을 받고, 치료비를 제때 못 내는 사람들에게 이 곳 의료사회사업실 직원들이 보증을 서서 퇴원 후 갚도록 한다면 큰 도움은 아니지만 환자와 그 가족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몇 안되는 직원으로 열심히 뛰어들었습니다. 의료사회사업실장을 하면서 느낀 건 더 많이 도와주고 싶어도 한정된 예산과 틀 속에서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렇 게 아니라 우리 병원 직원들이 작은 정성을 모으면 치료뿐만 아니라 이들의 마음과 정할 현실적인 고통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이른게 된 거죠.』

국내 최초로 병원 직원들로 구성된 불우 환자 돕기 함춘후원회는 가까운 곳에서 부담 없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편안한 친목모임 같기

도 하다. 이 곳 역시 많은 후원자들의 기부도 받고 있지만, 무엇보다 보람 있게 기금을 모으고 있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매년 자선 바자회와 1일 찻집을 통해 기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환자들로부터 받은 좋은 술이나 베타이 붓을 안 쓰고 연구실 어느 귀퉁이에 모아뒀다가 이런 날 가져가는 겁니다.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도 참 많잖아요. 게다가 교수들이 가져온 물건들은 제법 좋은 것도 많기 때문에 바자회를 처음 열었을 때 몇몇 사람들이 양주와 넥타이 같은 것을 몽땅 가져가더라고요. 한참 뒤에야 비싸게 되파는 보따리 장수들이란 것을 알고는 얼마 이상은 못 가져가도록 제한했습니다. 저는 그때 중고차를 내놓았는데, 당시 제법 돈 받고 팔았던 기억이 나네요. 1일 찻집 행사 때는 커피

한잔에 3천원씩 팔며 병원 식구들한테 몇 십장 쥐어주곤 하는데, 요즘엔 작은 음악회도 함께 열고 있어요. 매년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치료비가 증가하다보니 그만큼의 기금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아이디어를 짜고 있습니다.』

내과 분야에서도 3D 분야로 불릴 정도로 침들라고 하는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등 혈액종양을 다루는 금동문은 어렵게 주위에서 의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바람에 자연히 의사가 됐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법대를 권유했던 부친과는 크게 싸워야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과는 달리 그때는 ‘의사’하면 그저 먹고 살 수 있는 직업 정도로만 여겼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그런 의사가 돈을 벌지 못했어요. 환자를 보느라 돈 쓸 겨를도 없거니와 그날그날 전 것은 생활비로 다 나갔죠. 그래도 불평, 불만 같은 건 없었어요. 내가 운명으로 선택한 길이니 까요. 우리 시절엔 의사는 당연히 자신을 희생하면서 환자를 고치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대학시절 동기들과 함께 무의명 진료봉사도 나가고, 어려움이 있는 곳이면 찾아다녔는데 요즘 젊은 이들은 너무 자기 시간만을 가지려고 하고, 주어진 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마음이 무서울 때가 많아요.』

금동문은 끝으로 함춘후원회에 더 많은 병원식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환자들을 지키고 있는 우리 병원식구들이 술선수법해서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表)



제11회 자선바자회 자원봉사자들.



캐롤라이나주 동창회

동문 취업 지원하는 「연구발표회」 활발

글 : 金棋鉉 (56년 文理大卒·노스캐롤라이나 센트럴주립대 교수) 회장

캐롤라이나주 동창회는 지난 2000년 출범한 신생 동창회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동창회이다. 미국 동부 대서양 연안을 끼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를 한반도를 연상시킨다. 2개의 주를 합친 면적도 남북한과 거의 같으며 인구는 노스캐롤라이나가 약 7백만 명,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약 4백만 명 등 1천1백만여 명으로 남북한 7천만여 명의 약 6분의 1에 해당한다.

한인 교포는 두 주에 걸쳐 약 1만5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포들은 대부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 정부가 위치해 있고 대학의 도시인 캐롤라이나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노스캐롤라이나의 주 정부가 위

치하고 있는 Raleigh, 미국 제2의 은행 도시로 알려진 Charlotte 등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대와 듀크대가 위치하고 있는 Raleigh, Durham, Chapel Hill 등 3개 도시에 많은 서울대 동문들이 거주하고 있다. 미국 동부의 실라리벨리로 불리는 이 지역은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와 비슷하다. 연구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한인은 약 4백명에 이르며, 인근 대학에서 대학원에 재학중인 한국계 학생은 약 5백여 명이다. 이중 70~80%가 동문들 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곳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원의 밀도가 제일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 도시는 총 인구가 50만명도 안 되지만 노

벨상 수상자를 3명이나 배출한 명망 있는 곳이다.

캐롤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대 동문은 약 1백50여 명이다. 주로 이공계 과학분야에서 대학 교수, 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60년대 초반 朴在旻(52년 文理大卒) 동문을 선두로 徐文源(61년 工大卒) 동문, 1999년 호암상 과학분야 수상자인 皇甫明燦(68년 工大卒) 동문, 필자 등이 캐롤라이나 땅을 밟았다. Charlotte 지역에서는 金賢赫(58년 工大卒) 동문, 金熙族(66년 工大卒) 동문 등이 대학 및 Industry 분야에서 크게 활약하며 모교, 나아가 미국의 공지를 높여가고 있다.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李相植(71년 工大卒) 동문은 장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래 출신 동문들도 사우스캐롤라이나 전역에서 주로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鄭漢洙(55년 文理大入) 동문과 李崇顯(63년 醫大卒) 동문, 韓光秀(63년 醫大卒) 동문, 鄭良秀(66년 醫大卒) 동문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李錫基(55년 師大卒) 동문은 미국 골지의 기업에서 임원으로 활동했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대 교수로 재직 중인 申義恒(64년 文理大入) 동문은 Dixie Walker 前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한반도의 외교와 관련한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3년 전에는 노스캐롤라이나에 모교 趙完圭 전임총장 趙完圭 전임총장의 방문으로 많은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동문들을 격려해주는 것은 물론 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수립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연구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동문들이 주로 연구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어 정기 총회 등 연례행사 이외에 「연구발표회」라는 독특한 행사를 하고 있다. 박사과정을 마친 동문들을 중심으로 연구발표회를 개최해 국내 기업은 물론 미국 기업에의 취업을 지원하는 행사인 것이다.

내년 봄에는 보고 몸대 학생들을 초청해 공연을 주최하고 기금을 모으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캐롤라이나주부는 앞으로 이 곳 동문들의 진복과 건축은 물론 국내 동문들과 보다 더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金棋鉉 회장



2002년 연구발표회.



농경제학과 동창회

젊은 이사진 구성·재학생 교류의 장 마련

글 : 成培永 (56년 農大卒·前한국식품개발연구원장) 회장



成培永 회장

농경제학과는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 金俊輔(金俊輔) 수업을 초대 학과장으로 모시고 설립했으며, 그동안 약 1천3백여 명의 동문을 배출했다. 농업경제학은 경제학적 방법론을 농업, 환경, 지역균형발전 등 시·공간적 차이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적용하는 응용적인 학문으로서, 그 학문적 성격상 졸업생들은 농업분야는 물론이고, 일반 실업계와 함께, 관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왔다. 농경제학과 졸업생들은 재학 중 경제학적 이론기반은 물론, 구체적인 농업문제에의 해결책을 찾는 훈련도 받아왔고, 이러한 훈련과 문제의식을 토대로 사회 각 분야에서 리더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농경제학과 동창회 역시 40여 년 전에 형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매년 초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정기적으로 동창회 소식지를 발간하고 인명록을 개정하고 있으며, 출석명단

이 행사를 통해 선배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동창회 홈페이지(aerd.snu.ac.kr)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동창회는 학과발전기금의 모금,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 등도 시행한 바 있다. 금년에는 특히 농경제학과와 관련하여 기념해 모든 동문들용 새 건물로 초대하여 풍성한 잔치를 벌일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 농업계 인재의 산실인 농경제학과 동문회원들에 대한 자라는 인원이 다 한 수가 없을 지경이다. 우선 학계의 경우 전국 농경제학과 교수진의 절반 다수와 상당 수 경제학과 교수들이 우리 동문들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 나라 농업경제계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한국농경제연구원 등의 주요 연구진 역시 우리 동문들로 구성돼 있다.

관계로의 진출 역시 대단히 활발했다. 그 동안 네 번의 장관과 한 번의 대법관을 배출했으며, 차관급 이상의 공직을 역임한 분은 조금 과장하면 셀 수 없이 많을 정도이다. 또한 일반 실업계에서의 활약 역시 대단히 화려한데, 특히 금융계의 경우 농경제학과와 졸업생이 하나의 주축받는 집단이 될 정도이다. 최근 비교적 젊은 동문들을 중심으로 금융계

종사자 졸업생들의 동창모임이 따로 결성되기도 했다. 그와 국내 초우량기업의 최고경영자 역시 상당 수 배출된 바 있다.

서울대가 종합화되기 이전에 대학을 다닌 농경제학과 동문들은 주로 수월편에서만 생활을 했으나 종합화 이후에는 수월과 관악을 오가면서 강의를 들었고 이 과정에서 농경제학과와 졸업생들은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 고유한 문화와 동문간의 강한 결속력을 기르게 됐다. 이러한 독립성과 결속력, 그리고 성실성이 이들로 하여금 활발한 사회활동유를 하게 하는 밑거름이 됐다.

농경제학과 동창회는 변화하는 여건에

맞추어 보다 적극적인 향후 활동계획을 가지고 있다. 과거 농업인구가 절대 다수이던 때에 학장시절을 보낸 선배세대와 산업계·도시화 이후에 농업경제학을 공부하고 사회에 진출한 후배세대

사이에는 상당한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동창회는 보다 젊은 회원들이 동창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동창회 이사진에도 젊은 세대들이 대거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 해외에 거주하는 동문들의 연락처와 근황을 확인하는 작업 역시 전개해 계획하다.

학과 동창회가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을 서로 연결하고 회원들간의 따뜻한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동문들의 만남은 동창회는 물론 우리 사회를 보다 활기차고 밝게 만들어 가는 데에도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2003년 정기총회.

국제법위원회(ILC) 池植日부의장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金祥源공동대표

“강대국 일방적 외교에서 전환됐죠”

지난해부터 유엔총회 지속기구인 국제법위원회(ILC-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위원으로 활동해오던 한상대 법대 池植日(52년 法大入)대우교수가 지난 5월 5일 ILC 부의장에 선출됐다. 이에 金祥源을 만나 그동안의 활동과 위원회에 대한 궁금증을 들어보았다.

-ILC 소개를.

「유엔헌장 제13조 제1항에 의거해 1947년에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과 법전화를 위해 설립된 유엔 지속 기구로서 현재 각 대륙을 대표하는 국제법학계 석학 34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1백98개국의 회원 국가에서 낸 후보 중 각 대륙별로 인원을 배정해 투표로써 위원들을 선출하고 있지요」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는데 그 의의를 찾는데.

「최근 국제 기구에 진출하는 우리 동문들이 점점 늘어 국제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외교가 중국이다든지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게 일방적으로 기울지도 않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나라가 좀더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된 모교 宋相現교수, WHO 사무총장에 선임된 李鍾郁동문 등 점점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동문들이 늘고 있는 추세에 제가 ILC 부의장에 선출돼 국제향상에 한 몫 한 것 같이 기쁘죠」

—국제법의 법전화라는 말을 들을 하셨습니다.

「기준에 국제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규약 같은 것들이 관습으로 굳어져서 이것을 법전화 하는 것으로 법을 더 명료

화한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이제까지 국가간 조약에 관한 법규, 중재재판의 절차, 공해제도에 관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법전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과 부의장으로서의 책임이 다른 텐데.

「네 물론이죠. 보통 위원들은 변호사와 교수, 외교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저명한 인사들이고 자신들의 일들이 바쁜 분들이라 회기 중에 간혹 불참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의장은 매 회기에 불참하는 일은 생길 수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들의 충성한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 배려하는 뜻으로 제 자신의 발언을 자제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제법 문제 해결에

서 우리 나라의 위상이 제정립되려면,

「일본과 어업조약을 맺을 당시 협상 담당자들의 국제적인 감각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군요. 캐나다 같은 경우 담당관에게 어업 대사라는 칭호를 붙일 정도로 그 수준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미비하다는 겁니다.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뛰어난 어학 수준을 갖춘 국제 전문가들을 키워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池植日은美조지타운대 외교대 학사와 뉴욕대 국제법 석사·박사를 마쳤으며,美노스캐플라이나 세인트앤드루이스대 정치학과 조교수,美Radford대 정치학과 부교수·정치학과장·정교수, UNFSCO 주최 국제법교육협의회 의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亨)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환경 지켜야”

金祥源(56년 慶大卒·법무법인 한누리 고문)동문은 古稀의 나이에 또 불구하고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공동대표, 一家기념사업재단 이사장 등 왕성하게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19일 金祥源동문을 만나 그동안의 활동 등을 들어보았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소개를.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지난 2000년 1월 발족해 4월 시간법인으로 정식 출범했습니다.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는 「국민신탁」이라 할 수 있겠네요.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여 미래세대에 물려주자는 목표를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을.

「자연유산 1호로 강화 매화마을은 곤충지물, 문화유산 1호로 성북동에 있는故崔淳雨 前국립중앙박물관장 고택을 취득했습니다. 매화마을에는 멸실 위기에 있는 희귀한 식물들이 많고, 崔淳雨 고택에는 김홍도 그림이나 추사 김정희 글씨 등 귀한 문화유산이 많아 보존가치가 높습니다. 이를 포함해 14곳을 보전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보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셔널트러스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정실련의 「환경정의시민연대」가 산파 역할을 맡아 설립한 것이 한국내셔널트러스트입니다. 당시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공동대표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은 것이죠.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사회봉사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특히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유엔기념일 文國

瓚(77년 經大院卒)사장·등 주위의 권유도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경보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예전에 비해 무척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기부문화가 아직 취약하고, 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1895년 내셔널트러스트가 처음 형성된 영국의 경우 내셔널트러스트 법 제정 등을 통해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며, 회원이 3백만명에 이릅니다. 우리 나라는 회원이 1천명 정도인데,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一家기념사업재단」

이사업도 알고 계신데.

「가나리농공학교 설립자이신 一家 金容基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실천하기 위해 89년 12월 설립된 재단입니다. 金容基선생은 사회운동가로서, 농촌계몽운동가로서 북민주의 사상을 실천한 분이시며, 一家사상을 연구, 실천, 전파하는 것이 이 재단의 주된 활동입니다. 또 농업상, 산업상, 사회공익상 세 부문으로 나누어 一家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金동문은 1957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영등포지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金동문은 현재 장남 金柱賢 변호사,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차남 金柱永(87년 法大卒)동문과 함께 법무법인 한우리를 운영하고 있다. 金柱永동문은 지난 5월 경제주간지 「비즈니스 위크」지가 뽑은 「아시아의 스타 25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鎭)



TPC 鄭深浩대표

화제의 동문

EG치과 李枝英원장

국내 최초 애완동물 벤처기업 설립

“동물 병원의 수준 한 단계 높였죠”

『수의사는 이직만 쟁기는 정사꾼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좀더 높여 가는 데 한 몫 하는 이들이죠. 이런 동물병원과 수의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는 기업화된 병원이 필요합니다.』

동물 병원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대기업 자금력, 벤처기업 인원을 거치면서 경영수업을 쌓은 鄭深浩(96년 鄭大宰)동문은 애완동물 벤처기업 TPC(The Pet Company)를 설립, 동물병원의 업그레이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TPC는 모교 창업지원센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새로운 차원의 동물병원인 『펫 프렌즈(Pet Friends)』를 기획하여 지난 3월 2일 오픈했다.

동물병원의 벤처 기업화를 내세운 펫 프렌즈는 박사 2명을 포함한 전문 의료진으로 최고의 의료수준과 첨단 장비를 자랑한다. 현재 프랜차이즈 1호 점인 도곡동에 오픈하여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환경 속에서 가족들이 사랑하는 애완동물들에게 좀더 나은 시설과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鄭동문이 수의사의 길에 아닌 애완동물 벤처 기업의 경영을 선택한 것은 재학시절 화과 공부가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아 적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졸업 후 전공과는 먼 직장 생활을 통해 이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해도 좋을 만한 노후가 쌓였다고 판단, 전공과 노후우를 살려 애완동물 관련 벤처기업을 세우게 됐다고 한다. TPC 설립 당시 사업계획서만으로 여러 참무사를 찾던 그는 7 여원을 유치함으로써 그의 사업성과 수완을 인정받았다.

동물병원을 벤처 기업화하면서 그를 어렵게 만든 것은 직원들에게 새로운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었다. 기업과는 상관없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회사는 무엇이며, 직책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월차와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회사의 비전은 무엇인지를 심어주는 일이 가장 어려웠던 일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또 수의학과가 4년제에서 6년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2년 동안 우수한 의료진들을 찾기가 힘들었다는 것.

현재 펫 프렌즈가 내세우는 기업 이념은 낮은 이윤에 높은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 동물 병원의 경우보다 투자비용이 컸기 때문에 고액의 진료비를 책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준의 진료비를 받아 이들 병원에 다시 재투자하고 있다.

앞으로 鄭동문은 펫 프렌즈와 여러 중소 동물병원들이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높은 진료수준을 전파해 나갈 것이며, 상호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공생관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또 제인점을 확대해 나아가 종국까지 진출함으로써 국제적인 동물병원 프랜차이즈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 수의와 분야의 개방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도 그에 따른 의료수준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펫 프렌즈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수준으로 국내 동물병원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에요.』

(李)

현직 치과 의사에서 가수로 데뷔

“대중문화 주도하는 전문인 될 것”

『서울대 출신의 전도 유망한 치과의사 가수, 뛰어난 미모까지.』

이러한 조건이면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현역 치과원장으로 가수에 데뷔한 李枝英(98년 鄭大宰)동문이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월초 1집 앨범 『Storm』을 발표한 李동문은 데뷔하자마자 기요계를 들쭉이게 만들었다. 李동문이 관심을 끄는 것은 화려한 이력에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음악 스타일도 한 몫 했다. 1집 『Storm』은 10대 청소년들과 사회에서 한창 일을 하고 있는 20, 30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요즘은 방송 출연 요청까지 쇄도하고 있어 봄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고.

李동문이 가수를 준비하게 된 것은 모교 병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1년, 우연히 음반 제작사 관계자를 소개받게 됐다. 李동문이 평소 음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가창력도 뛰어나다는 점이 찬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음반 제작 제의를 받은 李동문은 고민 끝에 가수의 길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진료와 박사 과정 수업 등을 충실히 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 착실하게 준비를 했다. 2년여의 노력 끝에 대중 앞에 선보인 1집 앨범이 성공을 거두며 삼광 첫 발을 내딛었다.

치대 재학 시절까지 李동문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슈바이처를 존경하는 평범한 의학도였다. 대학 시절 가수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종학교 때부터 키워온 『현실하고 통하는 의사』의 꿈을 위해 일단 접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감춰져 있던 음악에 대한 열정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처음에는 반대를 하던 부모님도 딸의 의견을 존중해 결국 허락을 하게 됐고,



이제는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 특히 부산MBC 아나운서 출신의 어머니는 꾸준한 모나터링을 통해 주로 방송에서의 대처 능력을 지적해 주고 있다.

사실 李동문은 육성이 많은 편이다. 5년의 짧은 기간에 李동문은 모교병원 치과 전문의, 음지의대 치과 과장 등을 지냈으며, 미국 치과 의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또 올해 초에는 박사과정까지 수료하는 지질 줄 모르는 왕성한 학구열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월 개인병원을 열고 곧이어 가수 데뷔까지.

李동문은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꼭 해내고 다는 성격』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李동문은 의사로서의 소명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李동문은 『서울대 출신 의사가 가수는 무슨 가수』라는 일부의 선입견에 대해 『젊은이의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봐달라』며 『분야가 가수, 연예인이라는 것일 뿐 격려의 눈길로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잊지 않는다.

『전문인으로서 대중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는 李동문의 포부에서 도전하는 것의 아름다움이 떨어진다.』 (續)



대림성모병원 卞柱仙행정원장



앞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朴性價·金星源(동문 내외), 李聖元·金相任(동문 내외), 金棟和(동문 내외), 卞柱仙(동문 내외)

세상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가지 일을 멋지게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일을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 사업을 잘하는 사람, 지식농사 잘하는 사람 등등. 그중 여러 가지 일을 딱 부러지게 하면서 신용을 갈갈이 지키는 사람이자 자녀들을 윤곽케, 조금은 극성스럽게(?) 키운 사람이 있다.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이자 세계 걸스카우트 아시아태평양지역 의장,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 등을 맡고 있는 卞柱仙(64년 師大卒·본회 부회장)동문이 그 주인공.

남편 金光太(대림성모병원 이사장 및 대한병원협회장)씨 사이에 2녀1남을 둔 卞동문 가족 가운데에는 장녀 金相任(88년 音大卒·웹리스트)·차녀 金棟和(89년 音大卒·마라시센터 원장)동문, 장남 金星源(95년 醫大卒·분당 모교병원 외과 의사·유방암 전문)동문을 비롯해 큰사위 李聖元(85년 醫大卒·성경관대 외대 비뇨기과 교수)동문, 며느리 朴性價(95년 醫大卒·모교병원 해부병리과 fellow)동문이 모두 모교 출신이며, 작은사위 金容碩씨는 현재 뉴욕에서 안과 각막전문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큰사위의 부친 李杜鉉(50년 師大卒·모교 국어교 육과 명예교수)·黃桂峯(50년 藥大卒)동문 내외, 작은사위의 부친 朴斗泰(63년

래서 이렇게 35년간 병원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었고,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정말 많은 곳에서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어렵사리 시작한 병원인 만큼 卞동문 내외는 정말 바쁜 나날들을 보냈다. 대개 이런 부모의 자녀들은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고, 각자의 길을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卞동문은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든 부끄러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것을 심어주려 노력했다. 그녀는 항상 남편과 자녀에게 용기와 격려, 때론 불만사항, 서로 얘기하기 어려운 것들을 글로 남겼다. 베개 밑의 쪽지, 조그마한 감사의 글, 도시락 속에 숨겨진 마음의 표시, 해외출장에서 보낸 우편엽서와 항공편지 등. 뿐만 아니라 영어교사 시절, 병원 지하실에서 그룹과 의를 하며 직접 영어를 가르쳤고, 모든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들과 캠페인을 벌여 기금을 모으

- 장녀 金相任(88년 音大卒)
- 큰사위 李聖元(85년 醫大卒)
- 차녀 金棟和(89년 音大卒)
- 장남 金星源(95년 醫大卒)
- 며느리 朴性價(95년 醫大卒)
- 사돈 李杜鉉(50년 師大卒)
黃桂峯(50년 藥大卒)
金潤珠(55년 商大卒)
朴斗泰(63년 師大卒)

남편과 두 사위, 장남 내외 모두 의사로 활약

“가족들과 못다한 얘기들, 편지로 나눕니다”

師大卒·서울시립대 교수)동문, 며느리의 부친 金潤珠(55년 商大卒·美Keico Trading 사장)동문도 모두 모교를 졸업했다.

6남매 중 장녀였던 卞동문은 어린 시절 동생들을 홀로 돌봐야 했다. 부친은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일을 돕고 있었기 때문. 현성이었을까, 여동생들의 웃도 만들고, 공부도 시키며 게다가 대리점의 경리역할까지 맡았던 그녀는 그러나 연신 삼금병글 웃으며 한미디의 불평 없이 척척 해냈다. 『동생들 제우고, 그 날의 대리점 수입·지출을 모두 정리하면 그때부터 내 시간이었어요. 새벽까지 공부해서 그 날의 일을 모두 마무리지었을 때 느끼는 뿌듯함이란 굉장했죠. 참 감사한 건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몸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당시 부진으로부터 배운 경영 마인드, 신용, 부지런함은 지금의 나를 만드는 데 큰 밑거름 역할을 했어요. 그

는 등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맡았고 나섰 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그녀의 극성스러움은 부모로서, 아내로서, 사업가로서 그저 상할 상황마다 최선을 다하려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의미하는 것이 다.

『아상하게도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모두들 겸손하고 자기 표현을 안 해요. 장남은 부모가 누그러는 것을 내세우지도 않지만, 지금까지 제가 아들한테 했던 모든 편지들을 간직하고 있더

라고요. 장녀 역시 형로 앙상블 ‘바하루스’ 교수로 활동하면서 조용히 남편 내조를 하고 있으며, 차녀는 음악치료학 석사를 받고 남편 일을 열심히 돕고 있어요. 게다가 딸들은 어릴 적부터 손님맞이하고, 음식 차리는 것이 생활화돼 있어서 시대에서는 꽤 놀라는 눈치더라 고요. 컴퍼스 컷이었던 며느리 역시 겸소해서 남에게 신세지자 싫어 학비도 스스로 마련할 정도였어요. 장남 결혼기념일이 바로 발렌타인 데이라 그 날만 되면 또 제가 축하편지와 함께 꽃바구니를 항상 보내고 있죠』

이렇듯 지금도 卞동문의 병원 사무실 책상에는 며느리에게 보내는 편지, 손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녀와 한번이라도 인연을 맺을 사람들에게 인연가는 발송할 편지들로 가득 차 있다. (表)

「서울대 가족」을 찾습니다

「서울대 가족」코너에 소개할 동문 가족을 찾습니다. 형제, 자녀, 친척 등을 포함해 동문이 4명 이상인 가족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사진과 함께 추억이 될만한 가족들만의 진솔한 얘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121-812 서울대 미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편집부
전화 02-702-2233, 팩스 02-703-0755, e메일 editor@snu.ac.kr



나라의 부름받았던 서울대 학생들

禹昌道(51년 義大卒)前한성악국 대표

서울대 약대학은 예전에는 물자로 6가 서울운동장 근처에 있었다. 당시에 서울운동장은 입장을 내야만 경기구경을 할 수 있었다. 그때 서울운동장에서는 연·고대 축구경기가 있었다. 돈이 있으면 먹을 것 사먹기에 바빴던 시절이었기에 망설이고 있는데 경찰군과대 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선배가 나를 좋아했는지 함께 구경가자고 했다. 그 선배 표가 나폴레옹의 코를 닮았다고 하여 별명이 나폴레옹으로 통했다.

그리하여 그 나폴레옹 형을 따라 서울운동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경찰신문증제시와 일행이라는 말로 운동장에 무사히 들어갔다. 그런데 경기가 소라가 들려서 '입장하신 여러분 사태가 급하니 집으로 빨리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어쩌다 공짜 구경하러 왔는데 나가라고 하니 아랑기다 해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운동장 밖에서는 지프(jeep)에서 호위를 뿌리며 38선을 넘어 인민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시다 심장이 급하게 뛸 것을 깨닫고 화급히 집으로 달려들었다. 그때 서울시민이 피란으로 소란했다. 우리도 육색(Rucksack)에 당장 필요한 것을 챙겨 넣고 대문 밖을 나서는데 종전에 떠났던 해는 어느새 서산으로 사라지고 전지가 압축으로 질여가고 있었다. 그래도 갈 수 있는 태극기 인표를 들고 남으로 피란길에 합류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한강 다리가

끊어졌으니 돌아가리라 앞서가던 사람들이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할 수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다 삼각지에서 발길을 되돌릴 수밖에 없었다. 근처에 아는 사람 집을 찾아 헤매다 어느새 날도 밝아오고 해서 집이 있는 쪽으로 향해 걸어오다보니 남대문 로터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벌써 서울에는 인민군이 들어와서 남대문 로터리 밖에 소위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반동이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즉결 총살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사지가 떨려 발이 땅에서 떨어지 꿈중에 떠있는지 모르게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집으로 혼살같이 돌아왔다.

그때부터 인간무대지가 되어 집에 숨어 살아왔다. 당시 우리 나라에는 군대 비슷한 경비대라는 것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북쪽에는 인민군이라고 하는 잘 훈련된 군대와 탱크를 앞세운 중무장한 군에 의해 대한민국의 경비대는 전멸하더니 되어서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제주도와 경상도 인구를 제외한 전국이 인민군의 손아귀에 넘어갔던 것이다.

이 때 미국의 반격으로 잃었던 대한민국을 되찾기는 했으나 중공군의 남침으로 또다시 서울은 인민군의 세력으로 넘어가게끔 됐던 것이다. 이때 우리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국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잃었다. 그래서 서울시민을 위시하여 대한민국의 일할 수 있는 사람만이라도 남으로 피란시킬기 위하여 나라에서는 서울地區(서울市) 사령관 긴급 명령으로 서울시민 소집령

이 내려졌으며, 그리하여 서울대 의대생과 약대생을 동원하여 제2국민병으로 편입된 국민을 남으로 파견시킨 것이다. 만약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더라면 서울시민은 모조리 인민군에 이끌려 갔을 것은 분명하다. 그랬다면 대한민국의 재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그 과정에서 방위군 사건 같은 불미한 사건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됐다.

나라가 위급할 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서울대 학생이라고 판단해 서울대 학생을 믿고 동원하여 각처에 분산 수용돼 있는 제2국민병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에 서울대 학생을 투입한 것이다. 그때마다 빨치산의 출현으로 파벌총과 기관총의 습격을 받아 군트력을 이용하여 이렇듯에도 사망에서 집중공격을 면기도 했다. 전기불도 쏘고 쫓아올로 삼색기까지 오지에서 결사 인무수행하기 위해 팔고 지냈던 것이 악몽과 같이 되살아난다. 그렇게 어렵게 사신을 뚫고 나왔어도 먹을 것이 없어 한 주먹의 고춧가루로 밥을 비벼먹고 살아남았던 것도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겪어왔던 것이다.

이러한 지긋지긋한 추억도 한낱 보람 없이 오늘날 이 세상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관심과 위로의 말 한 마디도 없었던 것이 너무나 서러울 일이다.

젊은 학생 대표를 학생회장이자 한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인 6·25 당시에는 학도호국단이라는 제도가 있어 모든 학생은 호국단원



이 되어 일정한 훈련과 규칙을 준수해야 했다. 그래서 서울대 학생대표라고 하면 서울대 학도대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했다. 나도 그래서 공식직함을 학도호국단 학도대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부여받았던 것이다.

6·25 당시에는 국방부 건물이 을지로 입구 현 외환은행 본점 자리에 있었고, 호국단 중앙면파는 갈 건너 창계천 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6·25가 일어나고 학교측 지시에 의해 각 학교 학도대장이 국방부에 집합하여 국방부 청춘교 습외대장의 지시를 받았다. 우리 나라 전 대통령인 김홍삼(金弘三)도 학도신분으로 여기에 참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부산 피란시에는 전사학도호국단 신분증용 교부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그때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보다 중요한 서울시민의 피란을 위하여 발령된 서울유지병사구사령부(현 병무청)의 긴급명령을 따르게 된 것이다. 그때 나에게 발부된 지시서를 아직까지 소지하고 있다.

어느 페미니스트 변호사의 역할

李善瑛(86년 社會大卒)MBC 보도국 국제부 차장

얼마 전 기자회견에 연례 행사인 여자자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렸다. 「기후 여성기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타이틀을 댄 처치라 대회를 진행하는 뜻을 맡고 갔다 왔다. 벌써 눈치를 챘지만 타이틀이 긴 자라 이름 크게 실측 있는 걸 보았다. 자라 이름은 짧고 간명할수록 선 것이다. 하지만 작년 노 선배, 무슨 무슨 장 자라는 일단 말고 보는 게 좋다는 거였다. 나 듣기 좋게 한 말이기도 했지만, 당시 한참 부족한 내가 어찌어찌 해서 그 자리를 거절도 못하고 어쩔쩔한 형편이라, 그 선배(화과 선배이자 회사 선배)의 말은 큰 힘이 됐다.

국 신로, 밤에서 모인 여기자 80여 명을 앉혀 놓고 이를 동안 세미나를 진행했다. 연사는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역임한 姜鍾淵(姜鍾淵) 등 네 분을 모셨다. 우리 선배이기도 한 姜鍾淵(姜鍾淵)은 요즘 성폭력 피해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전화에 열심히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 성폭력 관련 범죄와 아동학대에 특히 민감한 우리 법조계에 대해 통탄하게 되더라는 얘기가 었다.

성폭행 당한 예닐곱 살짜리 여아들이 경찰서에 가서 옷차려 세한 걸 진술하고 경찰에 가서 또 진술하고 법정까지 가서 한번 더 진술하러 강요받는 게 우리 법조계의 현실. 그러는 사이에 그 어린 피해자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피해를 또 당하는 셈이다. 어린이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고 형사나 법관사 아저씨들이 타박도 예사로 한다라는 것이다. 피해 어린이들은 간명히 진술, 가령 'I was raped me'는 분명히 말한다고 한다. 하지만 언제, 어떤 상황 등에서 대해서는 질문자의 태도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게 오히려 정상인데도.

통증 감각, 아내 강간 등의 개념은 대한민국 법전, 관례 어디에도 아직 존재

하지 않는다. 남성 일변도 시각도 유만부동이지.姜선배의 인식은 높아졌다. 「관객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존중받지, 남존여비제나 장준유비까지 해서 하여튼 존비 의식이 가장 높은 집단이요.

그는 이례선 안 된다며 앞으로는 판사, 검사 입용에도 일종의 남녀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프랑스로도 검사 절반이 여성이면서, 또 어는 나란가 내가 그고는 있어왔지만, 거기에선 법관 구성에서 어느 한 성별이 60%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었다. 이런 제도를 우리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姜선배는 계속 나아갔다. 「우리 나라에서는 왜 또 여성 대법관, 여성 헌법재판관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느냐, 이런 나와야 한다.

몇월(?) 선배가 어찌다 이렇게 「급진」 페미니스트가 됐을까 저를 차다가 그의 부인 역시 법조인이고 두 딸의 아빠라는 사실 뒤



늦게 알고는 한탄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게다가 무엇보다, 남동처럼 「은 피는」 건수도 맑을 텐데, 입소문을 듣고 기대으로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와 그 가족을 때문이리라.

그들을 도우며 겪는 일들이姜선배로 하여금, 너무나 당연한 건물을 위해 아직은 「전사」처럼 「급진적으로」 별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한사코 말으라고 놓아주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



⑧4 국보해운(주)

수출입 및 해외이주화물 운송대행 전문업체

“아시아 물류중심 항만으로 부산항의 위상 높일 터”

현재의 기업은 생산품을 만들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해서 이익을 남겨야 한다. 수많은 기업들의 물량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운송 및 운반서비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어느 항공 및 운송업체와 거래를 해야 할지, 제품을 언제 어디로 보내고, 어떠한 절차를 밟으며 얼마만큼의 세금과 운임을 내야 할지, 책가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경우 이를 대행해주는 forwarding(포워딩) 업체에 맡기면 운송부터 마지막 도착지까지의 전과정을 여러 단계를 거쳐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지난 1987년 설립, 20년 가까이 국보급 해운회사로 도약하겠다는 일본으로 국내 수출입 화물 및 해외이주화물 포워딩 서비스, 컨테이너 Leasing 업무 및 오퍼레이션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보해운(주)(사장 박熙俊·70년 文理大政治學科卒)이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자회사인 국보물류(주)와 세계적 물류회사인 CTSI(총공 본사)와 합작한 CTSI코리아(항공 포워딩 서비스)를 두고 있는 국보해운(kbcnl.co.kr)은 일본 글지의 창고업체 Nohhi Warehouse & Forwarding과 제휴, 일본의 주요 항구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하는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태만,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홍콩 등 수많은 지역에 진출해 있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는 천진, 대련, 위해, 청도 및 연태 지역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주 및 유럽지역은



朴熙俊 사장

국보물류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보해운은 Nile Dutch Africa Line 한국 총대리점을 열어 가봉, 콩고, 카메룬, 앙골라 등 서

아프리카 지역의 Cargo 비자발급 서비스, 특수·일반 및 탱크 컨테이너 Leasing(임대) 업무를 담당하는 AMFICON 한국 총대리점과 EXSIF, USA TANK LEASING 한국 총대리점 등을 맡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의 수출원자재, 석유 화학제품 등의 안전한 운송도 담당하고 있다.

2002년 2백5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국보해운은 다수의 대리점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Niche Market」: 틈새시장을 적극 개척하겠다는 경영전략을 실천해나가고 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오지지역, 즉 주요 선사 등이 등한시하고 인지도가 낮은 항구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전략이다.

이는 화물유지의 양적인 경쟁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기존 고객들에게 필요한 요구사항을 최대한 만족시키려는 국보해운의 야심에 찬 계획이다. 현재 중남미 지역의 Lauritzen-Cool 라인과 계약을 체결해 에콰도르, 칠레, 페루지역의 서비스 향상을 기하

게 왔으며, 동남아시아의 틈새 항구를 집중 공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루트개발에도 많은 연구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한편 국보해운은 지난 2월 한일 합작으로 설립된 MFL(Multi Functional Logistics Co., LTD)의 한국 총법인으로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는 일본의 육상운송사와 한국의 국보해운 등이 2년여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 끝에 개발된 시스템으로써 일본 내에 철도 접속 서비스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일본이 주요한 수입·수출국인 만큼 지금까지 일본의 수입경로는 다소 복잡했다.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생산품을 컨테이너로 도쿄, 오사카의 주요 항에 수출한 후 트래킹 또는 익스프레스를 통해 각 지역의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해상운임에 비해 국내 물류비가 비쌀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물류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MFL에서는 일본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산항으로 화물을 집약해 국적선사를 이용, 주요 항뿐만 아니라 하주의 남포항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지방항에 부산항에서 수출하기 때문에 내륙운송에 비해 40%의 물류비 경감을 얻을 수 있다. 국보해운은 중국과 일본의 한적한 부산항을 코디네이트하며 양국의 원활한 물류 흐름을 책임지고 있다.

MFL서비스를 통해 우리 나라의 국적선사 이용률이 증가되고 부산항을 허브 port로 이용해 아시아물류중심 항만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직항서비스로 수입되는 화물을 우리 국적선사들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국적선사들의 화물확보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대량 화물들을 보관하는 창고시설 및 CY화역 등에도 큰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활발한 사내동아리 활동으로도 유명한 국보해운은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모임을 두고 있으며, 특히 나눔의 정신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직원회도 매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처럼 투철한 서비스 정신으로 한걸음만 바라보면 걸어온 박熙俊사장은 앞으로 「일본과 유럽간, 유럽과 중국간, 미국과 중국간 화물을 우리 나라의 부산항에 환적한 후 도착지까지 바로 운송해 드리는 원스톱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表)



국보해운이 담당하는 해운대리점 NDS LINE 선박.

모교소식

「분당 모교병원」개원식 개최

국내 첫 노인·성인질환 특화병원



좌로부터 徐範錫차관, 차용태원장, 權良淑여사, 成相哲원장, 金花中장관, 鄭義謙전임총장.

분당 모교병원(원장 成相哲)은 지난 6월 25일 성남시 구미동 소재 병원 1층에서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許麗사무총장, 모교 權義謙전임총장, 鄭明熙부총장, 의과대학 李家植학장, 치과대학 金廣守학장, 차용태모교 병원장, 영

문대 개원식을 개최했다.

모교병원 차용태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모교 병원의 전통과 의술을 계승하고 있는 분당병원은 특화된 역할분담을 통해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료계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한 차원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분당병원 成相哲원장은 식사에서 「노인질환에 대한 의료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낮은 탓에 기피하고 있으며 전문사설과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며 「분당병원은 노인질환 및 성인병에 대한 중심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이날 개원식에서 姜義植전 부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전자 의기록장치(EMR), 의료영상 저장 및 전송시스템(PACS)을 사용해 진료하는 모습 등을 담은 홍보 영상이 상영됐다.

1996년 작곡돼 지난해 12월 준공된 분당병원은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국내 최초로 노인 및 성인 질환을 위한 진료과를 특화시킨 국가 중앙의급센터이다. 특히 우리 나라 사람에게 많은 뇌졸중, 관절염 등의 병에 대해서 여러 진료과 전문의들이 함께 진료하는 6개의 「특성화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대필 도우미, 이동 도우미, 기숙사 세탁, 도서관 자료복사 등을 도울 예정이며, 센터 내에 문자확대 독서기와 종렉스트 프로그램, 음성서비스가 내장된 컴퓨터 2대를 운용해 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휠체어 좌석 및 저상시스템을 갖춘 소형 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콜택시 시스템을 실시하며, 특수교육을 전공한 장애학생 상담교수(사범대 교육학과 金東一교수) 및 전임조교를 통한 대면 및 인터넷 상담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모교에는 58명의 장애학생이 재학중이다.

법과대학

「제1회 후원의 밤」성황리에 열려



법학발전재단 설립에 남다른 열정을 쏟았으며, 후학 양성을 위한 소중한 장학금을 회사한 동문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를 받은 동문은 李大淳

법과대학(학장 安京煥)은 지난 6월 18일 서초동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鄭明熙부총장, 李漢東·李壽成 前극우총리, 康鎭實법무부장관, 辛基南·元壽龍국회의원, 법대동창회 韓命仁·李大淳전임회장, 李相赫회장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安京煥학장의 식사와 鄭明熙부총장의 축사에 이어 韓鎭實부학장이 연구시설 및 환경 개선, 학술연구 지원, 정보화, 학생교육 및 장학사업, 국제화, 동문커뮤니티 활성화 등 「법학발전」을 위한 비전 21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어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법대의 발전과 성장에 헌신하고,

(57년卒·前법대동창회장)·金義英(58년 唐大卒·前극우도시가스 상무)·尹世榮(61년卒·SBS 회장)·沈相明(64년卒·前법무부장관)·吳允德(65년卒·변호사)·田允喆(65년卒·前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韓章龍(65년卒·태우공업(주) 대표)·金在憲(65년卒)·朴滋烈(66년卒·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明義昇(69년卒·前법무부 차관)·鄭在龍(69년卒·법무법인 태평양 고문)·洪錫圭(79년 莊倉大卒·보광 사장) 동문, 故 沈載成동문 등 13명이다. 故 沈載成동문은 97년 삼승장학재단을 설립, 모교 법대와 의대에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이날 감사패는 아들인 沈正輔씨가 수상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문 열어

도우미제 등 학습 활동 지원



모교는 지난 6월 10일 관악캠퍼스 대학본부 1층에서 鄭雲模총장과 장애학생, 학부모 등 20

명은 장애학생에 대한 협력 제공 및 전문상담, 각종 지원업무를 전문직으로 담당하게 된다.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학생 지원센터」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국립대학으로서 처음 문을 연 장애학생 지원센터

우수강의 CD 발간



교수 학습개발 센터(소장 姜明求)는 지난 6월 3일 「사

회과학대학 사회학과 朴明圭교수의 2002년 2학기 「현대사회와 사회학」 강의를 담은 동영상

CD 5백장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金熙鎭교수에 이어 두번째로 朴明圭교수의 강의가 우수강의로 선정된 대에는 온라인을 활용한 수업방법이 돋보였기 때문이다. 1백본 분량의 동영상 CD에는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해 학생들이 조별로 자료와 토론을 준비하는 등 온라인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담겨 있다. (鎭)

국제대학원 개원식 개최

OECD 사무총장 기념강연

지난 5월 30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鄭憲燾총장, 金容德국제대학원장, 교육인적자원부 徐凡總次官, Donald Johnsto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대학원 개원식이 열렸다.

金容德총장은 식사에서 "훌륭한 국제화 관련 교수진과 연구시설의 지원하에 연계를 이뤄가며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교육기관 및 국제화 연구의 연계거점의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국제대학원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때론 비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鄭憲燾총장은 축사에서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갈 전문적인 전지구적 지도자들을 양성해야 할 교육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제대학원이 탁월한 전문대학원이자 연구기관, 국제화의 지역적 연결의 중심, 정책 및 전략 입안을 위한 중심기관으로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徐凡總次官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국제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가 동북아 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대학원으로 성장하여 국제화 교육 및 연구를 선도하고 세계적인 국제대학원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Johnston OECD 사무총장이 "OECD에서의 한국"이란 주제로 기념강연을 했다.

국제대학원은 지난 3월 1일자로 국제지역원에서 독립된 전문대학원으로 승격됐으며, 국제봉선과 국제협력, 국제지역화, 한국학 등 4개 전공에 2백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공과대학

「자랑스러운 공대동문상」 시상



작로부터 鄭民九학장, 鄭憲立·金慶烈·金泰修 등, 成百陸중대동창회장.

공과대학(학장 韓民九)은 지난 6월 25일 관악캠퍼스 연지아 어학무대에서 「자랑스러운 공대동문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金泰修(48년 주·주) 유신교과대학원 회장·金泰修(59년 주·Tai Soo Kim Partners 대표)·金東晔(72년 주·현대자동차(주) 대표)·鄭憲立(72년 주·대우조선해양(주) 사장)등이 각각 수

상했다.

공대는 지난 1993년부터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인 동문을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공대동문상」을 수여해오고 있다.

수의과대학

「야생동물 유전자원 은행」 현판식



수의과대학(학장 李文漢)은 지난 6월 4일 관악캠퍼스 수의관식을 가졌다.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으로 설

과대학 9층에서 李文漢학장, 朴鍾根연구처장, 南光熙자연생태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생동물 유전자원 은행」 현

판식 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은 동물 분야에서 국내 최초의 유전자원은행으로, 사자재 가는 야생동물의 유전자 생물을 수집, 보존, 분양하는 은행이다.

수의과대학은 지난 1999년 서울대공원과 공동으로 발족위기 야생동물 보전 협정을 맺고 연구와 보존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9월 한국과학재단의 지원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 설립을 준비해왔다.

운영 책임자인 수의과대학 李恒교수는 "야생동물 보존으로 국가생물자원 보존과 의학 등 타 학문 발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사스(SARS)처럼 야생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옮겨지는 질병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鄭憲燾총장은 축사를 통해 "치과생체재료연구동은 치과대학의 중점육성연구분야인 치과생체재료 연구를 활성화하고, 세계적인 연구 역량을 구축함과 동시에 산학협동 연구공간으로 국산 치과생체재료 개발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10월 착공한 생체재료연구동은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되어 있으며, 생물학, 화학 등 다양한 분야와 협동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시설, 도서관, 실험동물 사육시설, 산학연구 공간 등이 있다.



그동안 학계에 보고되어 왔다. 金교수의 SSeCKs 발견으로 뇌혈관 관련 질병연구와 신약개발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치과대학

치과 생체재료연구동 개관

치과대학(학장 金重守)은 지난 6월 20일 연건캠퍼스 치과대학 본관 1층에서 鄭憲燾총장, 鄭明熙부총장, 金重守학장, 모교병원 張英一치과 부원장, 梁源植치과병원회장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생체재료연구동 개관식을 개최했다.

崔海哲부학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개관을 위해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은 高在亨·鄭鍾平

전임 학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그리고 안전하고 청결한 시공으로 개관을 기여한 성동건설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金重守학장은 식사에서 "치과생체재료연구동은 새로운 치과생체재료의 개발과 산업화의 핵심 연구기관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치의학 분야의 종합적인 연구장소로 자리 매길 것"이라고 말했다.

약학과 金奎源교수

뇌혈관 생성 단백질 세계 첫 발견

약학대학 약학과 金奎源교수(사진) 연구팀은 지난 6월 16일 뇌중추 신경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뇌혈액관문(blood-brain barrier, BBB)」 형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 SSeCKs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뇌 중추신경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BBB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단백질이

국내 과학자에 의해 세계 최초로 발견된 것이다.

BBB는 뇌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특수한 방어막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를 뇌조직에 손상할 수 있는 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BBB가 손상될 경우 알츠하이머성병이나 세균성 수막염과 같은 뇌 관련 질병의 발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미식축구부

금오공대 꺾고 「아카시아볼」 2연패



미식축구부(지도교수 黃萬錫) Green Terrors는 지난 6월 1일 대구기톨릭대 운동장에서 열린 제12회 아카시아볼에서 금오공대를 34 대 28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Green Terrors」는 지난해에 이어 이 대회 2연패를 기록했다.

이날 안두열(체육교육학과 4년)이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돼 2년 연속 MVP를 차지했다. 이 대회에 앞서 「Green Terrors」는 지난 5월 18일 서울 오

류동 럭비구장에서 열린 제1회 서울최강자전에서 CAPS를 13 대 8로 꺾었다. 서울최강자전은 2002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우승팀과 대학부리그 우승팀이 우열을 가리는 대회이며 김백규(산업공학과 4년)군이 MVP에 선정됐다.

한편 1999년부터 감독을 맡아 온 南成男(95년 慶大卒)동문이 퇴임하고 朴智賢(95년 鄆大卒)동문이 신임 감독에 선정됐다. (續)

SNUA OPINION LEADER

「일그러진 근대」는 「나은 미래」 위한 타산지석

19세기 당시에 최강대국이던 영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내린 평가는 1백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정경해 아 함 귀중한 독소라 생각된다. 물론 영국인들의 시선은 그 시대 최고의 문명에 도달했다고 자부한 오만함과 오리엔탈리즘적 편견에 의해 곡해된 것이었지만 그들이 지적하는 우리의 모습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던 냉정한 진실이 담겨 있다. 모교 杖杖齋 교수는 저서 「일그러진 근대」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주장하고 있다.

영국사를 공부하면서도 나의 관심은 끊임없이 우리의 역사와 맞닿아 있었다. 왜 우리는 의제와 근대화의 압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식민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분단과 혈육간의 전쟁에까지 이르는 불행한 역사를 경험했는지에 대한 답을 역사에서 찾아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려면 근대애 가장 모범적 역사를 경험했다고 평가받는 영국을 공부해야 하겠다는 것이 영국사를 전공하게 된 나의 원래 의도였다. 「일그러진 근대」는 그런 내 관심사를 영국·일본·한국의 상호인식을 통해 살펴 본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라는 전통적 이분법을 벗어나, 영국이라는 제3자의 시선을 통해 두 나라를 견주어 보는 비교사의 방법을 택해보았다.

영국·한국·일본의 만남

영국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의회 민주주의, 그리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등 近代性이 내포하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구현한 근대성의 典範으로 평가받는 나라다. 한편 일본은 19세기 후반 비서양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로, 근대성의 기원인 서양에 대해 전쟁까지 벌여 세우는 특이한 유형의 근대화의 예를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같은 동아시아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우리는 일본과 달리 식민지가 되어서야 근대성과 만나게 되는, 그럼으로써 불가피하게 왜곡된 근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비파란적지 못한 역사를 경험했다.

19세기 말~20세기 초 세상에 있어 가장 부강하면서 가장 제국인 영국은 격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 시기 많은 영국인들이 외교관 혹은 여행가로 한국과 일본을 다녀갔고 기록을 남겨놓았다. 이들의 관점에 의하면 일본은 「문명의 떠오르는 별」이었고, 한국은 「문명 퇴락의 본보기」였다. 일본은 스스로를 「제2의 영국」이라고 부르면서 영국과의 근대를 열심히 모방했는데, 영국도 일본인들을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비서양인으로서 「백인이 되어 가는 사람들」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일본과 한국의 비교는 여러 면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생각된다. 첫째 일본인의 애국심과 한국인의 무관심, 둘째 효충적으로 통치되고 있는 일본과 부패와 착취로 신음하는 한국,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예의바르고 부지런한 일본인과 반해 더럽고 무례하고 게으른 한국인이

그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러일전쟁(1904)에서 승리하고 당당히 문명국의 일원이 됐음을 과시하자 영국은 일본을 「인형의 집」으로 폄하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일본이 물질적 근대화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서구 문명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서구화는 결국 피상적 모방에 그칠 것이라는 이유였다. 영국인들은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일본의 前근대성을 찾아내어 그들이 결코 서양을 추월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다. 물론 영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비판적으로 돌아선 근본 원인은 동아시아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기득권을 일본이 침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웃음거리 왕국

영국인들은 시민사회의 존재나 공공장소, 물질적 번영, 청결과 행동거지의 세련됨 등의 기준을 적용해 한국을 아프리카나 다름없는 야만국으로 판단했다. 영국인들은 특히 관리들의 부패와 착취가 한국의 前근대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잘못 통치되고 있는 나라」, 「동양적 전체성의 열혈」, 「웃음거리 왕국」이었다. 영국인들의 「他者 만들기」에 사용된 근면과 자력라는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아무 할 일 없이 그저 차마 달이나 길보통이에 서 있는」 한국은 미개사회였다. 1890년대 한국을 방문한 영국의 여류 탐험가 이사벨라 비숍은 양반에 대해 특히 심한 비판을 가했는데, 양반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일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아내가 「숨어서 비느질이나 세탁 일을 해서 버는 돈

영국인들은 조선을

공공정신 등이 결여된

아프리카나 다름없는

야만국으로 판단했다

에 얽혀」 살거나 친척들의 도움으로 받는 것은 불행에 가깝고 간주한다는 관론이었다.

흥미롭게도 요즘 우리 사회에서 발견되는 팽팽한 양극화 그리고, 당시 영국인들은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나 민족 감정이 한국인들에게 결핍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부터 한국은 어차피 독립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외부로부터 개척되어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러한 영국인들의 인식은 일제시대를 통해서도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잔혹한 일본 식민통치의 문명적 지배하면서도 한국의 독립 요구를 가담할 것으로 차분해 보았다. 한국인들은 영합적 습성을 지니고, 위험한 줄도 모르고 자유를 달라고 조르는 어리석이로 판단

됐고, 이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중 중추 문제를 논의할 때도 영국은 한국의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신탁통치를 구상했다.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 영국은 더 이상 세계 최강대국이 아니며, 「문명의 떠오르는 별」 일본은 대평양전쟁으로 된 사람을 맞은 후 다시 떠올랐다가 요즘은 또다시 가라앉은 형국을 맞고 있다. 한편 「문명 퇴락의 본보기」였던 한국은 현재 어느 누구도 견지할 수 없는 국력의 궤를 경험하면서 그 기세가 하늘 끝까지 뻗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빨리 변화하지 않는다.

수백년 역사의 집

개혁이 지체된 일본과

우물안 개구리 모습을

벗어 던지지 못한 한국

현재 세력이 많이 위축되었지만 영국에는 수백 년 동안 사회 각 분야에 쌓여 온 지혜가 있다. 그래서 영국은 여전히 노련한 대국이다. 한편 일본이 지금 어려움을 겪으며 말끔하게 개혁의 필요성을 되뇌면서도 그 작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백 년 역사의 집 때문이다. 일본은 명목적으로 과거를 벗어 던지고 새 것을 받아들이던 메이지 초기의 예외적 모험을 다시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과거의 모습에서 얼마나 탈피해 있는가? 아니 우리는 우리의 참모습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2002년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월드컵 4강 진출이나 촛불시위로 상징되는 반미운동 등)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현재로서는 황기를 확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물 안 개구리로서의 우리 모습을 우려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사고와 확장하기를 바라며 쓰여졌다.

모든 자라는 무언가 할 말이 있어 책을 쓰는 법이다. 이 책도 독자들에게 간혹 채워진다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첫째는 어떤 목적론적 인식에 사로잡혀 역사를 해석하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계급」, 「민족」 혹은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삼았었고 그들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전진하는 역사를 상상해왔다. 그러나 역사에는 미리 상정된 주체란 없다. 때로는 개인이, 때로는 집단이, 때로는 인간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역사를 움직인다. 역사는 또한 일기선으로 뻗은 길어 아니라, 그것은 구름구름하고, 빗이 떨어지고, 때로는 전진이 아니라 되돌아가기도 하는 과정이다. 그 안에는 자기와 他者의 뚜렷한 구분도 없다. 나와 他者는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는 서로로 밀착해 갈수록 모방하고 타락하는 불합리 존재들이 뿐이다. 그런 역사의 면면이



朴枝香

- 1975년 모교 문리대 서양사학과 졸업
- 1978년 모교 대학원 문학박사
- 1985년 뉴욕주립대 철학박사
- 1985~87년 뉴욕 프랫대 조교수
- 1987~92년 인하대 교수
- 1992~현재 모교 서양사학과 교수

자연스레 눈에 들어올 수 있으려면 우리의 시선이 자유로워져야 한다. 이 책에서도 보여주듯 19세기 말~20세기 초 영국 내의 일본인들의 사고와 근대와 前근대의 이분법적 인식에 머물렀다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靑년대는 그러한 사고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 뜻을 인정해야

내가 전달하고픈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우리도 우리 불행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지 않는 성향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19세기 후반 외국의 밀려오는 압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근대화에 실패함으로써 국권을 빼앗기고, 뛰어난 분단과 전쟁을 겪은 것도 우리는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려왔다. 지정학적 요인이다. 냉정하게 하든 여러 공적 때문이며 「우리 탓」을 인정하지 않으면 피를 내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었던 한국에 대해 가장 동정적이던 영국 언론인 프레더릭 매켄지조차 「아무런 편견이 없는 관찰자」였던 오늘날 한국이 자신의 독립을 상실한 것은 대체로 구 왕조의 부패와 위약성에 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1928년부터 2년간 경성 제국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친 영국의 소설가 드레이크도 다음과 같은 쓴소리를 남겼다. 「이런 민족이 감당적으로 통치받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 내부에 그럴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착취적인 소국적인 멸망한 민족은 스스로에게 책임을 져야만 한다. 조선이 약의 무고한 희생자였다고도 심각하게 동정해서는 안 된다.

드레이크의 쓴소리는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온 진실을 환기시켜주는 말인 것 같다. 이제 우리 역사의 불합리한 과정을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우리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역사를 되짚어보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의 이번 메시지가 오해 없이 전달되기를 바랄 뿐이다.

밖에서 본 서울대, 서울대인

일과 인간 모두 사랑하는 서울대인을 그리며

金恒中(대전대 교수) : 金澤中(67년 文理大卒·대구가톨릭대 인문대학장)동문 남동생



나는 가장과 직장에서 서울대 출신들을 대하며 그들에 대한 부러움도 갖고 있는 한편 아쉬움 역시 갖게 됐다. 그러한 부러움과 아쉬움을 통해 평소에도 지냈던 서울대인에 대한 느낌을 작은 이 글은 개인적인 나의 경험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모든 서울대인에 대해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전제를 조심스럽게 밝혀 두고 싶다.

사람은 이성과 감성을 지닌 존재이며, 선과 악의 경향을 모두 지니고 있고, 또한 이기심과 이타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런 양면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조화되느냐에 따라 나뉘는 성격이 규정되고, 사람 형질이 가능할 수 있는 갖대개 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사회를 이끄는 지도층으로서 그런 조화와 균형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이며, 사회의 주요 지도층에 대부분 서울대 출신들이 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 주요한 자리에 서울대인들이 위치한다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국가의 주요 업무를 관장해 나가는 요직에는 뛰어난 두뇌와 명석한 판단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할 것이고, 서울대 출신들이 발탁될 확

률이 자못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고의 위치에 서 있는 그들에게 탁월한 능력만큼이나 인간적인 면모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지를 생각해 볼 때 과연 몇 점이나 될까?

내가 만난 서울대인들은 솔직히 감성보다는 이성이 훨씬 발달된 듯 보여진다. 우리 교육이 전인교육을 표방하고 있지만 입시위주 교육의 틀 속에서 지적인 부분에 치중된 「똑똑한 사람」을 양성하는데 편향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럴 수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 남들과 어울리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데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교육 환경에 기인하지 않을까 싶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한 공감적 이해 능력은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방식에 길들여져 있어서 관계라는 측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서울대인들에게 이성에서는 만점인 반면, 감성면에서는 박한 점수를 주고 싶어진다.

어느 비서에게 출신이 유학시절에 겪었던 경험에서 나오는 쓴 소리를 귀를 기울여 보자. 「서울대인들은 동문들끼

리는 조화를 이루는 듯하지만 밖에 나와서는 타 대학 출신자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고 기쁨과 물치림 같은 사람들 같았다. 서울대인들하고는 왠지 일상적인 이야기가 안 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서울대인들도 분명 대한민국 사람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데, 왜 외국인들에게서나 느껴보았을지 모르겠다. 이질감을 느끼는 것일까? 그들의 지난한 자부심에서 나오는 경계일까? 전공 공부에 주력하느라 일체의 주변 환경에는 관심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서울대인들이 너무 똑똑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일까? 서울대인 스스로 왜 그런 모습으로 비추게 됐는지를 질문해 보자.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만나며 관계를 이루며 산다. 그 만남이 진실 되려면 이성 못지 않게 감성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성이 앞선 관계는 자칫 이해 타산에 빠지기 쉽고, 수박 겉 핥기 식의 피상적 관계로 남게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냉철한 이성과 풍부한 감성에 바탕을 둔 인간관계는 서로의 입장을 배려

하고 이해하면서 더욱 깊어 있는 관계, 보다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서울대인은 우리 사회에서 맡은 바 역할에 존심을 다하는 소수의 창조적 역할을 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인에 거는 기대도 크고, 그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이 큰 것도 사실이다. 프리즈는 일찍이 「건강한 사람은 일과 사람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고, 張一淸선생은 「진정한 자아란 생활의 단계를 거친 겸손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남다른게 우수한 두뇌와 수많은 인내로 가장 우수한 서울대를 졸업했기에 선망의 대상인 그들에게 일단의 박수를 보내면서도, 그 당당한 자부심이 자만심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갖고 더 누린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해할 줄 아는 겸손으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된다. 이상적인 삶이란 어느 하나의 추로 기울지 않고 평형 감각을 유지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서 분출하는 아름다운 생명력이고, 이를 진실 되게 가꾸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일 것이다.

박성희 문화상책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신부의 아버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딸의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가 겪는 갈등과 고충, 미묘한 심리와 그 때문에 벌어지는 한바탕 소동을 다룬 것입니다.

사람들은 딸이 결혼한다고 하자 사위 감이 어떤 녀석인지 근심걱정에 휩싸이는 것부터 시작, 부자인 사돈과의 혼사를 앞두고 「웨딩드레스와 결혼 케이크는 왜 그렇게 비싼지, 결혼식장 차임은 왜 그리 요란하게 해야 하는지」 물라 아내와 사사건건 부딪히다 끝내는 외진 곳에 갈하기도 하는, 아버지의 코믹하면서도 딸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을 담고 있지요. 세상의 아버지란 동서양 할 것 없이 비슷하다는 걸 보여준다고나 할까요.

갑자기 옛 영화가 생각난 건 얼마 전 딸을 시집보낸 분께서 딸 가진 아버지

두 사람에게 「딸을 결혼시키려면 참고 또 참아야 한다」고 강조한 까닭입니다. 평소 겸손하고, 자녀 결혼식 또한 소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그분은 딸 아버지인 절로 그렇게 못했더라 「아들 때는」 하고 버티셨습다.

그래도 처음 사돈과 상견례를 하면 날 「겸손하게 하라고」 제언, 사돈데에서 「그러자고」 했는데도 마상 결혼까지의 과정은 당초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사건건 이의를 제기하면 아내와 싸우는 건 물론 딸에게 상처를 줄 것 같아 꼭꼭 눌러 참았다는

아들의 미래가 괜찮다」는 식이고 딸 쪽에선 「내 딸이 어디가 부족해서」, 하다 보면 서운한 감정이 쌓이고 부모들의 감정싸움이 격해지면 편한한 자식들 사이에도 금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글쎄요, 형제는 많지만 웬만하면 상견례에서 약혼식을 하지 말지, 결혼식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치를 건지, 하객 수는 몇 명 정도로 맞출지 합의하면 어떨까요. 돈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만큼 꼭 절조하고 거북한 하객까지 그래요 나중에 얼굴을 붉히느니 부모를 끼리 어느 정도 선을 그으면 좋지 않을까요.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거꾸로 딸 쪽에서 주도권을 잡고 아들 쪽에 「그냥 좀 따라주십사」 해 어쩔 수 없이 하지는 대로 하는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쩌다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몇몇 한바탕 주고 받은 사람에게까지 동방 청첩장을 돌리거나, 「남들이 예전으로 이만큼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는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거나, 자녀 결혼을 파시와 거러의 수단으로 삼는 듯한 일부의 풍조는 이제 그간 적절해야 하지 않을까요.

웬만한데 꼭 초대하고 싶고, 기쁜 마음에 딸과 아들 사람들한테만 청첩장을 돌리는 것만이라도 실천에 옮기면 결혼에 따른 이해관계의 상당부분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폐백 대신 신랑신부의 성관절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계획을 담은 비디오를 하객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해볼까 하고요.

신랑 쪽은 신부에 대해, 신부 쪽은 신랑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 채 「카더라」라는 말만 듣고 청구서(?)에 따라 부조만 해도, 그런 결혼식은 이제 그만 고칠 때 되지 않겠는지요. 전봉은 좋은 것이지만 시대에 맞게 방법을 바꿀 수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양상이 생기면 결혼 후에도 쉽사리 치유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되도록 겸손하고, 요란한 결혼식보다 앞날의 미래를 준비하면 하루 8백70평 결혼하는 동안 한쪽에서 3백평 이상 이혼하는, 가슴 아픈 일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결혼이야기 / 청첩장 & 예단 & 혼수

예기였습니다.

문제는 예단과 혼수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결국 예단과 혼수는 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대신 결혼식날 입을 양복을 23만 원짜리로 구입함으로써 「겸손한 결혼」에 대한 소신을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유일한 시위였다는 것이지요.

사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치고 예단과 혼수문제로 한바탕 감정이 상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문제는 서로의 기대치가 다른데서 비롯되는 듯합니다. 서로의 형편이 차이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비슷해도 혼수나 예단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어긋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 배려하지 않는 것이지요. 게다가 아들 쪽에선 「내

랜지요. 당사자들끼리 합의한 뒤 부모들에게 지켜주십사 청할 수도 있을 테구요.

그 덕에선 식후 폐백을 앞두고 바깥사돈이 「할게 받습다.」 하는 바깥에 그렇게 했답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 신랑측만 폐백을 받는다는 것도 구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약혼식 때 양가 가족과 친척에게 인사를 했으면 굳이 폐백을 따로 할 이유도 없을 테구요. 따라서 「약혼식을 하지 말지, 한다면 초대법위를 어디까지로 하지 정하고, 약혼식을 하면 폐백은 하지 말지」 하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요. 결혼이라는 게 대부분 아들 가진 쪽에서 주도하다 보면 딸 쪽에서 딱히 주장을

생광과학대학 동창회 劉頌玉회장

신임 동창회장

인 터 뷰

마산지부 동창회 李梓旭회장

“새 명부 발간에 최대 역점 둘 터”

지난 4월 12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생광과학대학 동창회장에 선임된 劉頌玉(61년 家政大學·한국공중복지사연구원 원장)동문을 만나 동창회 활성화 방안과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회장을 맡은 지 두 달여가 지났는데 애로사항은.

“여성 동문들이 대부분인데 가사와 직장, 양육 등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쫓겨야 하는 가정사가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자적 상호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생광과학대학에 남학생들의 입학이 늘어난 이후 동창회에 적극 참여하려는 남자 동문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생활과학이 발전하고 위상이 높아지면서 동창회도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창회 활성화 방안은.

“새로운 회원명부 발간을 올해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동문들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 정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새 명부 발간을 통해 전인 회장들께서 나눌 것은 동문들간의 결속과 유대가 더욱 단단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때 일을 통해서 명부를 보내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고요. 이외에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늘려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등산이나 견학 등 동문들이 가족과 함께 재미와 활력을 느낄 수 있는 모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중복지연구원에 대한 소개를.

“공중의 복지문화화를 위한 재향하는 연구소를 하고 있습니다. 원의 숙우부터 장식품 등 의복류와 공중행사 전부터 연구의 대상입니다. 선관제에 사·박사 과정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있고요. 연구원을 설립한 것은 지난 79년인데요. 당시 경주 보문단지 조



성을 위해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으로서 신라의 전통문화 복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을 위해 연구원이 필요하다는 주위의 권고에 공중복지연구원을 설립한 것입니다. 현재시대에 거의 소멸된 공중복지문화의 복원은 학자로서의 소명이라는 생각으로 24년간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문들에게 한 마디.

“모교가 우리 나라 엘리트의 산실이기 는 하지만 세계적인 위상에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교를 세계 속에서 한층 더 인정받는데는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어느 단과대학만이 아니라 동문들과 교수님들, 재학생들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劉동문은 영어인턴트바리스를 의상학과를 수료했으며 홍익대에서 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선관제대 교수·생광과학대학장·생광과학대학원장, 문화체육부 문화재위원, 한국복지학회 회장,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보존 정책위원, 국제복지대학원의 공동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선관제대 명예교수, 서울시 문화재위원, 한국복지학회 교문을 맡고 있다. (필)

“포괄적인 모임으로 거듭날 것”

지난해 12월 12일 마산지부동창회에 신임회장으로 李梓旭(65년 工大卒·주)노키아TMC 대표이사 회장)등문이 선출됐다. 취임 후 6개월 정도 지난 지금 그 동안의 동창회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활동 사항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동창회 소개를.

“그동안 마산지역에 동문들이 주축을 이루었으나 창원지부 동창회가 어려움에 따라 이 지역 동문들까지 포괄해 동창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두 지역의 동문들은 선임된 임원 37명이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 임명된 임원 37명이 마산지부 동창회를 이끌고 있는데, 이사장은 대외 기구에 대한 권한이 있다. 그리고 동창회의 가장 큰 행사인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12일 개최해 한해를 마무리하며 동창회의 미래를 계획한다.”

—운영상의 문제나 어려움은 없는지.

“먼저 동창회 운영의 주축이 되고도 말할 수 있는 이사회의 운영상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죠.

창원지역의 특성상 공장의 책임자급 동문들이 많은데, 이들은 장기적인 거주자들이 아닌 한정된 기간동안 임무를 부여받고 부임하므로 이사회 활동에 참여하는데 제약이 있고 이사회 구성원들의 나이가 많아지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전들을 보완하기 위해 젊은층의 임원 4명을 선원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동안 해온 사업들을 평가한다면.

“동창회의 가장 우선 사업이라고 한다면 역시 상호간의 친목도모이겠지요. 동창회는 친목에도 규정짓듯이 회원간의 친목도 모를 위해 선관제부터 지금까지 노력해왔습니다.”

동문들의 근무처를 방문하는 사업, 골프 모임 등을 전개시킴으로써 동문간의 결속을 다지고 동문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동창회가 내실을 튼튼히 다져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적인 활동에 관심을



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동창회 사업 중 최대 발전시켜나갈 계획들이 있다면.

“많은 영역에서 동문들이 최선두에 서서 활동하고 있지만 사회의 어두운 면에 있어서도 동문들이 앞장서서 사회를 밝히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갈까합니다. 이제까지 각각의 동문들이 사회에서 지도자급의 역할을 다해 오고 있지만 동창회 차원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반성의 뜻에서 현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남중암사회복지관의 후원 사업에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리 동창회가 현재 경남지역에서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지역 동문뿐만 아니라 지역 인근에 있는 동문들까지 아울러서 포괄적인 동창회로 거듭나기 위해 동문들 파악에 노력할 것입니다.”

李동문은 대한전선(주)에 입사하여 경남김도회장, (주)노키아 TMC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모교 전자통신회장, 대한검도회장, 대한민국 ROTC 경남지부 회장, 경남동그라미 회장 등을 맡고 있다.

(후)

언론정보학과 대학원 동창회 金彦鎬회장

“新·舊 세대간 소통과 만남 중요”

지난해 12월 21일 언론정보학과 대학원 동창회(舊신문대학원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金彦鎬(78년 新大院卒·도서출판 한진사 대표)동문이 취임했다. 이에 金회장으로부터 동창회의 운영 방안 및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언론정보학과 대학원 동창회로 새롭게 출발한 계기는.

“지금까지 동창회 모임을 가지면 구세대들이 모여서 친목을 나눴지요. 이는 신문대학원이 없어지고 대학원이 신문학과가 생기면서 다시 학과가 신설되는 바람에 사실 같은 성격을 띠고 있지만 졸업 후 각각 다른 모임을 가졌습시다. 하지만 동창회는 항상 새로운 동문들의 참여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엇만

다 젊은 후에 동문들과 선배 동문들이 조화롭게 함께 이끌어나가기 하기 때문에 이러한 新·舊 세대간의 단점된 상황을 해소시키기 위해 언론정보학과 대학원 동창회로 새로 거듭난 것입니다.”

—창립총회에서 어떤 모토를 내걸고 출범하였는지요.

“개인적으로는 동문들과의 ‘소통’과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며, 일단 동문들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해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교에 기증 ‘복합과장’을 보내면 동문이라는 인식이 증대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문제를 모교 교수님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의논할 예정입니다.”



—오는 7월 28일 동문가족 초청 ‘해이리 노을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신데.

“동창회는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를 유도하는 기획 및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참여해 우리 동창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1976년 한림사를 설립해 의결

을 이끌어오셨는데.

“저는 한 시대에 빛이 보여줄 수 있는 ‘한 권의 책’을 만드는 일이 참으로 가치 있다는 신념으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와 시대가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들고, 책이 역사와 시대를 만듭니다. ‘한 권의 책’으로 상징되는 출판문화가 한 국가사회의 불문 민족정체성을 일깨워 세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동문들에게 한 말씀.

“언론계에서 동문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성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일이 언론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며 이 같은 책무들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68년 중앙대 신문학과를 졸업한 金회장은 8년간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하다 지난 1976년 도서출판 한림사를 설립했으며, 현재 헤이리아트센터 건설위원회 이사장, (사)한국출판인회의 회장 등을 맡고 있다.

(表)

보건대학원

청계산 등반...매달 개최키로



보건대학원동창회(회장 吳興會)는 지난 6월 14일 서울 원지동 원터마을 입구에서 출발해 청계산을 등반하는 제1회 등산대회를 가졌다.

모교 鄭文植(60년卒) 명예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朴南永(60년卒) 자문위원, 朴聖培(61년卒) 대한보건협회장, 대한결핵협회 裴吉漢(77년卒) 결핵연구위원, 고려대 병설 보건대학 林國煥(78년卒) 교수를 비롯

한 참가자들은 원터악수터와 돌문바위를 지나 청계산 매봉을 등반했다.

이날 토의를 거쳐 등산모임을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가지기로 의결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위해 최회장, 裴吉漢·申碩軒(67년卒)·林國煥 부회장이 협찬금품을 제공했다.

간호대학

제1회 골프대회서 친목 도모

간호대학동창회(회장 俞淑子)는 지난 6월 14일 인천그랜드CC에서 모교 洪淑子 학장, 상성서울병원 李正姬 원장간호연구소장, 삼성서울병원 成美熙 간호본부장, 보건산업진흥원 張善淑 연구원, 서울아산병원 鄭仁熙 간호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네 명이 한조를 이뤄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메달리스트 및 Nearest에 李敬子(66년卒) 동문, Longest에 張善淑(76년卒)

동문, 형운상에 金基珠(70년卒) 동문이 각각 수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문 친목 모임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분기별(3월, 6월, 9월, 11월)로 골프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으며, 다음 대회는 오는 9월 27일 개최를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를 위해 俞淑子 학장상과 참가상을, 李正姬 부회장이 저녁식사를, 李敬子 동문이 생맥주를 각각 제공했다.

耳順테니스회

10월 3일 40번째 정기전 계획



耳順테니스회(회장 金明煥)는 지난 6월 6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테니스코트에서 제39회 정기대회를 가졌다. 매년 식목일, 현충일과 개천절에 정기전을 가지고 있는 60세 이상 동문 모임인 耳順테니스회는 이날 고희조 및 耳順 A·B조로 나뉘어 경기를 치렀으며, 고희조는 金應憲(39년卒)·金善吉(52년卒) 동문, 耳順 A조는 鄭炳基(57년卒)·車熙元(58년卒) 동문, 耳順 B조는 韓甲株(55년卒)·金元九(56년卒) 동문들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입상

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희조 준우승: 鄭萬泰(48년卒)·朴仁鎭(57년卒) 동문, 3위: 金明煥(51년卒) 동문, △金有燾(62년卒) 동문, △耳順 A조 준우승: 金成敏(55년卒) 동문, △耳順 B조 준우승: 李昌鎭(54년卒)·曹圭勇(57년卒) 동문, 3위: 全敏烈(48년卒)·李在熙(63년卒) 동문, △耳順 B조 준우승: 李昌鎭(54년卒)·曹圭勇(57년卒) 동문, 3위: 全敏烈(48년卒)·李在熙(63년卒) 동문, △法大조: 韓甲株(55년卒) 동문, 3위: 全敏烈(48년卒)·李在熙(63년卒) 동문, △法大조: 韓甲株(55년卒) 동문, 3위: 全敏烈(48년卒)·李在熙(63년卒) 동문

다음 대회는 개천절인 10월 3일 개최를 예정이다.

죽산학동문회

새 회장에 崔辰浩동문



죽산학동문회(회장 鄭一永)는 최근 모교 수원캠퍼스 사색의 동산에서 동문 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죽산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鄭회장은 동창회와 모교를 위해 헌신한 吳鳳鵬(52년卒·모교 명예교수) 전임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새 회장에 崔辰浩(71년卒·최진호연구소 대표·前전북대 교수) 동문(사진)을 선출했다.

2부 체육대회 행사에서 동문 및 가족들은 건강을 다지며 수원캠퍼스에서의 마지막 행사를 이뤄냈다.

전기동문회

신임 회장에 李林澤동문



전기동문회(회장 金世鍾)는 최근 삼성중 무역클럽에서 200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2002년도 결산내용을 심의하고 2003년도 예산을 확정했으며, 인간 심의를 통해 2003년 홈페이지에 행사를 9월중에 개최하고 동문회비 납부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들이 적극 노력할 것을 권유했다.

또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李林澤(65년卒·한국남부발전(주) 사장) 동문(사진)을 선출했으며, 총무이사에 薛承基(80년卒·모교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동문, 재무이사에 金容權(83년卒·모교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동문을 선출했다.

농화학과

강학규 전달식 가져

농화학동문회(회장 洪淳一)는 최근 모교 수원캠퍼스 사색의 동산에서 동문 및 가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鄭회장은 '오랫동안 장악규'으로 모교 재학생 홍철기(2년)·임현덕(4년)·정정원(4년) 군에게 2003년도 1학기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李宇鎭(68년卒·삼이벤처 대표) 동문을 신임 회장에 선출했으며, 2년에 한번 열리는 회원주소록은 연말에 배포하기로 했다.

마로니에회

외교관 출신 동문 축하모임 가자



문리대 64학번 모임인 마로니에회(회장 鄭昭盛)는 지난 5월 29일 모교 관악캠퍼스 동원생활관에서 최근 영친한 權寧民 駐獨逸 대사, 외교통상부 金在憲 차관, 李泰植 駐英국 대사, 張東哲 駐스페인 대사를 축하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다른 임원으로 참석하지 못한 張東哲대사를 제외한 金在憲차관, 權寧民·李泰植대사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鄭회장을 비롯해 국민대 樸武勳 교수, 중앙일보 卜相根은상위원, SBS 李瑞善상임역, 車進道前아메리칸 에어라인 한국지사장 등이 축사를 하며 참석자들과 덕담을 나눴다.

이밖에 동문 가운데에는 俞炳宇 日오사카 총영사, 張基濬 駐加拿大 대사, 최근 세계노동기

구(ILLO) 의장에 선출된 鄭養溶 駐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현지에 있으며, 駐미대사관 문화담당 공사를 역임한 孫增壽동문과 정무담당 공사를 지낸 宋鍾奭동문 등이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분회 許翹사무총장, 姜才秀 前금로보와 이연선 사장, 국제조명 樸武一 사장, 이화여대 朴代烈교수, 영남대 정치행정대학 金永文학장, 미래통상 金洪淵대표, 신용보증 기금 朴男悅전무이사, 한국무역정보통신 辛庚午사장, 安光允 前력커 이사, 전주MBC 柳熙龍 사장, 李孟憲 前전미환은행 지점장, 동국대 任敦姬교수, 林寶峰 세무사, UPS 鄭明珠한국지사장, 스토리텔링 崔敦희교수 등이 자리를 함께 해 성황을 이뤘다.

영어교육과

새 회장에 卞柱仙동문 선출

영어교육과동창회(회장 李聖浩)는 지난 6월 13일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전임회장인 숙명여대 申瑞雨(52년卒) 명예교수 및 고려대 金德範(61년卒) 교수, 영동포중학교 吳亨子(64년卒) 교장, 여의도고 姜義淑(65년卒) 교장, 경북고 任東元(75년卒) 교장, 모교 樸五良(72년卒)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李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2003년 사업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卞柱仙(64년卒·대림성모

병원 원장·세계검스카우트 국제 지역 의장) 동문을, 감사에 金淑慶(78년卒) 동문을 선임했다.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창회의 가장 큰 역할은 선배배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면서 모교 회파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동문 및 선배배간의 Networking과 발전기금을 모으는 것이며,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동창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등 동문 모두의 뜻을 모아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수학과

신임 임원진 소개·감사패 수여

수학과동창회(회장 金永煥)는 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상산수리과학관에서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홈페이지를 겸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金회장과 韓鍾圭(70년卒·모교 수리과학부 학부장) 명예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지난 2년동안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金在實(68년卒·前산학협력단 사장)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새로 선임된 黃元樹(70

년卒·동양증권 상무)·李起南(71년卒·삼지전자 회장)·崔泰求(71년卒)·金明鎭(72년卒·세프라인 사장)·李向飴(72년卒·충실대 수학과 교수)·金庚花(73년卒·이화여대 수학과 교수)·金 禎(76년卒·시스코스 테크놀로지 사장)·李道植, 高芝洽(73년卒·美인디애나 수학과 교수·모교 초빙교수)·金永教(83년卒·이주대 수학과 교수) 사업이사, 崔勝權(79년卒·모교 수학과하부 교수) 총무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表)

동정

수상

▲**鄭義順**(40년) 京城女子師範
卒·성마로 안나의 집 수녀)=
지난 5월 31일 한글회관에서 문
화관광부와 한글학회가 공동 주
관하는 제1회 「우리말글 지킴
이」 수상자로 선정돼 위촉장과
메달을 받음.

▲**車河柱**(56년) 文理大·서강
대 명예교수)=지난 7월 14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성
국학술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
18회 성국학술문화상(인문사회
과학부문)을 받음.

▲**李相赫**(58년) 法大·연호



사·법 대 총장
회장)=지난 6
월 14일 중앙
고교 강당에서
열린 중앙고우
회 정기총회에
서 「지람상전 중앙인」에 선정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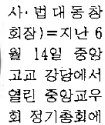


▲**黃海根**(60년) 工大·동일기
술공사 회장)=
지난 6월 18
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
의 날」 기념식
에서 은탑 산업

훈장을 받음.

▲**李瑞賢**(60년) 文理大·모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지난
6월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
린 석학술대상에 수여하는 제1회
임석국어학상을 받음.

▲**朴燦久**(60년) 師大·서울시



교육위 교육위
원)=지난 5월
31일 신한웨딩
문화원에서 시
조성환씨 문물
에 헌한 공로
로 제3회 난대시조공로상을 받음.

▲**領平宰**(61년) 商大·교보생
병교육문화재
단 이사장)=지
난 6월 27일
보조금 본사 컨
벤션홀에서 민
간외교의 공로
를 인정받아 루마니아 정부로부터
「Commander」 훈장을 받음.



교육위 교육위
원)=지난 5월
31일 신한웨딩
문화원에서 시
조성환씨 문물
에 헌한 공로
로 제3회 난대시조공로상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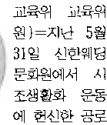
▲**李瑞賢**(60년) 文理大·모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지난
6월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
린 석학술대상에 수여하는 제1회
임석국어학상을 받음.

▲**朴燦久**(60년) 師大·서울시

이동·선임



▲**李台鑒**(62년) 工大·한국원
지역문화재단
이사장)=지난
7월 4일 미국
콜로라도 덴버
에서 열린 국제
라이온스클럽
제86차 세계총회에서 한국인으로



는 처음으로 국제회장에 선출됨.
▲**李憲淳**(64년) 文理大·이화
여대 교수)=지난 6월 13일 국
어국문학회 창립 51년만에 최초
의 여성 회장에 선출됨. 秋溪
崔憲淳기자의 막내딸이다.

▲**崔美烈**(64년) 法大·국회의
원·본회 부회
장)=지난 6월
26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선출
됨.

▲**鄭正信**(65년) 法大·모교 행
정학과 교수)=
지난 6월 24
일 울산광역시
의원회에서
울산대 제6대
총장에 선임
됨.

▲**朴英俊**(66년) 商大·연합뉴
스 감사·본회
감사)=지난 6
월 19일 연합
뉴스 뉴스통신
진흥회 설립 위
원에 선임됨.

▲**金在洪**(76년) 社會大·경기
대 교수)=최근
오마이뉴스
논설주변에 선
임돼 주요 의제
에 대해 고견을
발표함.

▲**劉俊烈**(77년) 社會大·前동
양대 대표)=최근 정보통신관
련 서비스 제공, 인터넷 바둑
사이트 운영업체인 (주)타이폴
대표이사에 선임됨.

▲**張子俊**(77년) 醫大·모교 병
리학교실 교
수)=최근 모
교 뉴스데에서
열린 제19차
한국실용종
학대회에서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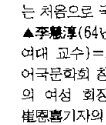
로서는 처음으로 임기 2년의 회
장에 선출됨.

▲**金姬英**(89년) 人文大·=지
난 5월 9일 미
국 앨라배마
대서양대학 교
수에 임명됨.
모친은 의정부
고교 교장을 역
임한 崔妍嬪(55년 藥大)동
문.

▲**蔡洙三**(39기) AXP·前현대방
송 사장·그레
이저 커뮤니케
이션스 회장)=
지난 6월 27
일 대한매일신
보 사장에 선임
됨.

▲**尹宗敏**(46년) 京城經濟專門學
校·평화문화
연구소 연구원
장)=최근 사
무실을 이
전함. (종로구
북문로 285-5
파크뷰 타워
904호, 전화: 732-3200)

▲**丁奇洙**(51년) 文理大·한국



▲**李憲淳**(64년) 文理大·이화
여대 교수)=지난 6월 13일 국
어국문학회 창립 51년만에 최초
의 여성 회장에 선출됨. 秋溪
崔憲淳기자의 막내딸이다.

▲**崔美烈**(64년) 法大·국회의
원·본회 부회
장)=지난 6월
26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선출
됨.

▲**鄭正信**(65년) 法大·모교 행
정학과 교수)=
지난 6월 24
일 울산광역시
의원회에서
울산대 제6대
총장에 선임
됨.

▲**朴英俊**(66년) 商大·연합뉴
스 감사·본회
감사)=지난 6
월 19일 연합
뉴스 뉴스통신
진흥회 설립 위
원에 선임됨.

▲**金在洪**(76년) 社會大·경기
대 교수)=최근
오마이뉴스
논설주변에 선
임돼 주요 의제
에 대해 고견을
발표함.

▲**劉俊烈**(77년) 社會大·前동
양대 대표)=최근 정보통신관
련 서비스 제공, 인터넷 바둑
사이트 운영업체인 (주)타이폴
대표이사에 선임됨.

▲**張子俊**(77년) 醫大·모교 병
리학교실 교
수)=최근 모
교 뉴스데에서
열린 제19차
한국실용종
학대회에서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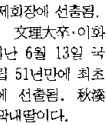
로서는 처음으로 임기 2년의 회
장에 선출됨.

▲**金姬英**(89년) 人文大·=지
난 5월 9일 미
국 앨라배마
대서양대학 교
수에 임명됨.
모친은 의정부
고교 교장을 역
임한 崔妍嬪(55년 藥大)동
문.

▲**蔡洙三**(39기) AXP·前현대방
송 사장·그레
이저 커뮤니케
이션스 회장)=
지난 6월 27
일 대한매일신
보 사장에 선임
됨.

▲**尹宗敏**(46년) 京城經濟專門學
校·평화문화
연구소 연구원
장)=최근 사
무실을 이
전함. (종로구
북문로 285-5
파크뷰 타워
904호, 전화: 732-3200)

▲**丁奇洙**(51년) 文理大·한국



▲**李憲淳**(64년) 文理大·이화
여대 교수)=지난 6월 13일 국
어국문학회 창립 51년만에 최초
의 여성 회장에 선출됨. 秋溪
崔憲淳기자의 막내딸이다.

▲**崔美烈**(64년) 法大·국회의
원·본회 부회
장)=지난 6월
26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선출
됨.

▲**鄭正信**(65년) 法大·모교 행
정학과 교수)=
지난 6월 24
일 울산광역시
의원회에서
울산대 제6대
총장에 선임
됨.

▲**朴英俊**(66년) 商大·연합뉴
스 감사·본회
감사)=지난 6
월 19일 연합
뉴스 뉴스통신
진흥회 설립 위
원에 선임됨.

▲**金在洪**(76년) 社會大·경기
대 교수)=최근
오마이뉴스
논설주변에 선
임돼 주요 의제
에 대해 고견을
발표함.

▲**劉俊烈**(77년) 社會大·前동
양대 대표)=최근 정보통신관
련 서비스 제공, 인터넷 바둑
사이트 운영업체인 (주)타이폴
대표이사에 선임됨.

▲**張子俊**(77년) 醫大·모교 병
리학교실 교
수)=최근 모
교 뉴스데에서
열린 제19차
한국실용종
학대회에서 의사

로서는 처음으로 임기 2년의 회
장에 선출됨.

▲**金姬英**(89년) 人文大·=지
난 5월 9일 미
국 앨라배마
대서양대학 교
수에 임명됨.
모친은 의정부
고교 교장을 역
임한 崔妍嬪(55년 藥大)동
문.

▲**蔡洙三**(39기) AXP·前현대방
송 사장·그레
이저 커뮤니케
이션스 회장)=
지난 6월 27
일 대한매일신
보 사장에 선임
됨.

▲**尹宗敏**(46년) 京城經濟專門學
校·평화문화
연구소 연구원
장)=최근 사
무실을 이
전함. (종로구
북문로 285-5
파크뷰 타워
904호, 전화: 732-3200)

▲**丁奇洙**(51년) 文理大·한국



▲**李憲淳**(64년) 文理大·이화
여대 교수)=지난 6월 13일 국
어국문학회 창립 51년만에 최초
의 여성 회장에 선출됨. 秋溪
崔憲淳기자의 막내딸이다.

▲**崔美烈**(64년) 法大·국회의
원·본회 부회
장)=지난 6월
26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선출
됨.

▲**鄭正信**(65년) 法大·모교 행
정학과 교수)=
지난 6월 24
일 울산광역시
의원회에서
울산대 제6대
총장에 선임
됨.

▲**朴英俊**(66년) 商大·연합뉴
스 감사·본회
감사)=지난 6
월 19일 연합
뉴스 뉴스통신
진흥회 설립 위
원에 선임됨.

▲**金在洪**(76년) 社會大·경기
대 교수)=최근
오마이뉴스
논설주변에 선
임돼 주요 의제
에 대해 고견을
발표함.

▲**劉俊烈**(77년) 社會大·前동
양대 대표)=최근 정보통신관
련 서비스 제공, 인터넷 바둑
사이트 운영업체인 (주)타이폴
대표이사에 선임됨.

▲**張子俊**(77년) 醫大·모교 병
리학교실 교
수)=최근 모
교 뉴스데에서
열린 제19차
한국실용종
학대회에서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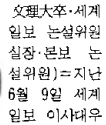
로서는 처음으로 임기 2년의 회
장에 선출됨.

▲**金姬英**(89년) 人文大·=지
난 5월 9일 미
국 앨라배마
대서양대학 교
수에 임명됨.
모친은 의정부
고교 교장을 역
임한 崔妍嬪(55년 藥大)동
문.

▲**蔡洙三**(39기) AXP·前현대방
송 사장·그레
이저 커뮤니케
이션스 회장)=
지난 6월 27
일 대한매일신
보 사장에 선임
됨.

▲**尹宗敏**(46년) 京城經濟專門學
校·평화문화
연구소 연구원
장)=최근 사
무실을 이
전함. (종로구
북문로 285-5
파크뷰 타워
904호, 전화: 732-3200)

▲**丁奇洙**(51년) 文理大·한국



▲**李憲淳**(64년) 文理大·이화
여대 교수)=지난 6월 13일 국
어국문학회 창립 51년만에 최초
의 여성 회장에 선출됨. 秋溪
崔憲淳기자의 막내딸이다.

▲**崔美烈**(64년) 法大·국회의
원·본회 부회
장)=지난 6월
26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선출
됨.

▲**鄭正信**(65년) 法大·모교 행
정학과 교수)=
지난 6월 24
일 울산광역시
의원회에서
울산대 제6대
총장에 선임
됨.

▲**朴英俊**(66년) 商大·연합뉴
스 감사·본회
감사)=지난 6
월 19일 연합
뉴스 뉴스통신
진흥회 설립 위
원에 선임됨.

▲**金在洪**(76년) 社會大·경기
대 교수)=최근
오마이뉴스
논설주변에 선
임돼 주요 의제
에 대해 고견을
발표함.

▲**劉俊烈**(77년) 社會大·前동
양대 대표)=최근 정보통신관
련 서비스 제공, 인터넷 바둑
사이트 운영업체인 (주)타이폴
대표이사에 선임됨.

▲**張子俊**(77년) 醫大·모교 병
리학교실 교
수)=최근 모
교 뉴스데에서
열린 제19차
한국실용종
학대회에서 의사

로서는 처음으로 임기 2년의 회
장에 선출됨.

▲**金姬英**(89년) 人文大·=지
난 5월 9일 미
국 앨라배마
대서양대학 교
수에 임명됨.
모친은 의정부
고교 교장을 역
임한 崔妍嬪(55년 藥大)동
문.

▲**蔡洙三**(39기) AXP·前현대방
송 사장·그레
이저 커뮤니케
이션스 회장)=
지난 6월 27
일 대한매일신
보 사장에 선임
됨.

▲**尹宗敏**(46년) 京城經濟專門學
校·평화문화
연구소 연구원
장)=최근 사
무실을 이
전함. (종로구
북문로 285-5
파크뷰 타워
904호, 전화: 732-3200)

▲**丁奇洙**(51년) 文理大·한국

국제간체담도 최우수논문상 영예 의대 내과 尹容範·金溶泰교수팀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수상



尹容範 교수



文宇哲 교수



金溶泰 교수

모교 병암 소화기내과 尹容
範(72년 醫大·金溶泰(83년
醫大·)교수와 중앙대 의대
文宇哲(80년 醫大·)교수 등
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지난 5
월 28일부터 31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5차
국제간체담도 유럽학술대회
에서 최우수논문상(Best Paper
Prize)을 받았다.

최우수논문상은 전세계 학
자들이 발표한 3백65편의 논
문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8편만을 엄선해 시상
한 것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는 尹교수팀이 유일하게 상을

받았다.

논문 제목은 「DNA 칩을 이
용한 체장암과 만성 췌장염의
진단」으로, DNA 칩을 이용해
서 체장암의 수백가지 유전적
변이 여부를 간단하면서 단시
간에 검출할 수 있다는 것.

尹교수는 「체장암 발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알려진 유전
자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의
새로운 유전자 변이가 관여하
고 있음을 밝혔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체장암
발병기전을 더 정확하게 밝힐
수 있으며, 체장암의 치료에
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黃炳國교수

美식물병리학회 펠로우에 선정

고려대 생명환경과학대학 생
명산업과학부 黃炳國(70년 農
大·)교수(사진)가 오는 8월
10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Charlotte에서 열리는 미국 식
물병리학회 학술대회에서 한국
인 최초로 펠로우상을 받는다.

黃교수는 30년동안 파룬에
대한 집념과 탁월한 창의력을
기진하여 생명과학기술을 이
용, 친환경적으로 식물병을
치유하여 세계 식량증산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
았다.

黃교수는 독일에서 박사학



위를 받고 1981년 귀국해 고려
대에서 봉직하며 식물병리학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업적
을 쌓아 SCI 국제저명학술지
에 1백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
고 20여 개의 특허를 출원,
등록한 바 있다.

지난 6월 13일 주유엔 대사
에 金三勳(68년 法大·)외교
안보연구원 연구위원이 임명
되는 등 재외 공관의 동문 대
사 21명, 차석대사 1명에 대
한 인사자가 단행됐다.

주사우니아리아 대사에
姜光遠(67년 文理大·주무마
나리아 대사), 주이탈리아 대
사에 崔泮沆(68년 農大·대
통령 동맹해당수석비서관),
주독일 대사에 權曉民(68년
文理大·외교안보연구원 연구
위원), 주스페인 대사에 張
東哲(68년 文理大·외교안보
연구원 안보통일연구부장),
주호주 대사에 趙南勳(69년
法大·외교통상부 기획관리

차·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장), 주헝가리 대사에 李浩鎭
(74년 法大·주유엔 차석대
사), 주루웨이트 대사에 朴
國(75년 文理大·대통령 목
재안보비서관), 주코스타리카
대사에 任昌淳(76년 人文大·
주독일 대사), 주가나 대
사에 李樹八(76년 社會大·
주총무 부총영사), 주캄보디
아 대사에 李漢坤(77년 人文
大·주에를린대 부총영사),
주레바논 대사에 金英燮(78년
社會大·외교통상부 장관 보
좌관)등문이 기용됐다.

여성 직입 외교관으로는 처
음으로 외교통상부 金瓊任(74
년 文理大·문화외교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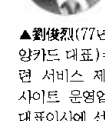
재외 공관장에 동문 23명 임명 외교관 출신 첫 女대사 나와

실장)등문이 각각 임명됐다.
주오스트리아 겸 빈 국제기
구 대사에 曹昌範(69년 法大·
주·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
장), 주핀란드 대사에 洪正鈞
(69년 法大·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주영국 대사에 李
泰植(70년 文理大·외교통상
부 차관보), 주벨기에 겸 EU
대사에 吳行鏞(70년 法大·주
미·미국 공사), 주말레이시아
대사에 李英俊(72년 文理大·
주·미국 공사), 주싱가포르
대사에 柳光勳(73년 文理大·
주·주에를린대 총영사)등문이
발탁됐다.

또 주세인트 피에 대사에 金秀
東(74년 文理大·외교통상부
아중동국장), 주우크라이나
대사에 李曉陽(74년 文理大·

주루마니아 대사에 임명됐다.
78년 외시 12회로 외교관 생
활을 시작한 지 25년만에 대
사의 「꿈」을 이루었다. 이전
에도 여성인 국제교류재단 李
仁海(55년 文理大)이사장이
핀란드 대사와 러시아 대사에
임명된 적은 있지만, 모교 서
양사학과 교수 출신이었다.

이날 차석대사급인 주일본
정부공사에 趙重鈞(75년 文理
大·주에를린대 총영사)등문
이 임명됐다.
한편 지난 6월 19일 주네덜
란드 대사에 嚴聖憲(70년 法
大·)관원도 국제관계자대
사가 임명됐으며, 30일 주에
를린대 총영사에 金燮(74년
行大說)주리비아 대사가 임
명됐다.



▲**劉俊烈**(77년) 社會大·前동
양대 대표)=최근 정보통신관
련 서비스 제공, 인터넷 바둑
사이트 운영업체인 (주)타이폴
대표이사에 선임됨.

▲**張子俊**(77년) 醫大·모교 병
리학교실 교
수)=최근 모
교 뉴스데에서
열린 제19차
한국실용종
학대회에서 의사

로서는 처음으로 임기 2년의 회
장에 선출됨.

▲**金姬英**(89년) 人文大·=지
난 5월 9일 미
국 앨라배마
대서양대학 교
수에 임명됨.
모친은 의정부
고교 교장을 역
임한 崔妍嬪(55년 藥大)동
문.

▲**蔡洙三**(39기) AXP·前현대방
송 사장·그레
이저 커뮤니케
이션스 회장)=
지난 6월 27
일 대한매일신
보 사장에 선임
됨.

▲**尹宗敏**(46년) 京城經濟專門學
校·평화문화
연구소 연구원
장)=최근 사
무실을 이
전함. (종로구
북문로 285-5
파크뷰 타워
904호, 전화: 732-3200)

▲**丁奇洙**(51년) 文理大·한국

▲**李憲淳**(64년) 文理大·이화
여대 교수)=지난 6월 13일 국
어국문학회 창립 51년만에 최초
의 여성 회장에 선출됨. 秋溪
崔憲淳기자의 막내딸이다.

▲**崔美烈**(64년) 法大·국회의
원·본회 부회
장)=지난 6월
26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선출
됨.

▲**鄭正信**(65년) 法大·모교 행
정학과 교수)=
지난 6월 24
일 울산광역시
의원회에서
울산대 제6대
총장에 선임
됨.

▲**朴英俊**(66년) 商大·연합뉴
스 감사·본회
감사)=지난 6
월 19일 연합
뉴스 뉴스통신
진흥회 설립 위
원에 선임됨.

▲**金在洪**(76년) 社會大·경기
대 교수)=최근
오마이뉴스
논설주변에 선
임돼 주요 의제
에 대해 고견을
발표함.

▲**劉俊烈**(77년) 社會大·前동
양대 대표)=최근 정보통신관
련 서비스 제공, 인터넷 바둑
사이트 운영업체인 (주)타이폴
대표이사에 선임됨.

▲**張子俊**(77년) 醫大·모교 병
리학교실 교
수)=최근 모
교 뉴스데에서
열린 제19차
한국실용종
학대회에서 의사

로서는 처음으로 임기 2년의 회
장에 선출됨.

▲**金姬英**(89년) 人文大·=지
난 5월 9일 미
국 앨라배마
대서양대학 교
수에 임명됨.
모친은 의정부
고교 교장을 역
임한 崔妍嬪(55년 藥大)동
문.

▲**蔡洙三**(39기) AXP·前현대방
송 사장·그레
이저 커뮤니케
이션스 회장)=
지난 6월 27
일 대한매일신
보 사장에 선임
됨.

▲**尹宗敏**(46년) 京城經濟專門學
校·평화문화
연구소 연구원
장)=최근 사
무실을 이
전함. (종로구
북문로 285-5
파크뷰 타워
904호, 전화: 732-3200)



AMOPA(프랑스) 교육·문화
교환 수문자협회) 총회에 참석할
▲林光澤(52년) 工大卒·임광토
전 회장·총협
합 회장·본회
회장)·지난 6
월 23일 코엑스
컨벤션센터
에서 총정리 신



행수도 건설추진 범종복인 신
도권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28
일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총협
출신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협합회 정기총
회를 개최한.

▲李升煥(59년) 法大卒·한국가
스연명 사무총
장)·지난 6월
1일 일본 동경
에서 열린 국제
가스연명 관계
총회에 참석.



2005년 개최예정인 제7차 가스
산업정보통신기술 심포지엄을
유치할.

▲田秀一(62년) 法大卒·광운대
교수·한국부패
학회)·지난
6월 4일 숭실
대 사회봉사자
배 마당에서
「참여정부의



반부패 과제와 지방부패 방지
방안」을 주제로 학회술대회를
개최할.

▲李承宇(63년) 工大卒·한국건
설 기술연구원
장)·지난 6월
10일 청림 20주
년을 기념하여
한국과학기술회
관에서 건설기



술 발전을 위한 토론회와 분야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가짐.



▲徐丙誌(63년) 文理大卒·통일
연구원장)·지
난 6월 13일 롯데
호텔에서 「한
반도 평화변화
와 국제협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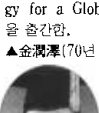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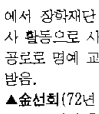
▲李炯均(64년) 文理大卒·한국
신문방송인클
럽 회장·본회
부 회장·본
노설위원)·지
난 6월 27일
한국언론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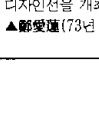
에서 「가시화 개방이후 취재현
실」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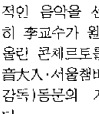
▲李聖泰(64년) 醫大卒·새서울
의원장·한국의
약사 평론회
장)·지난 6월
18일 서울클럽
에서 보건복지
부 장관(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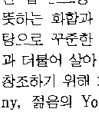
년 看護大卒)장관을 초청, 이사
회를 개최하고 의약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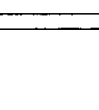
▲林吉鎮(69년) 工大卒·美 미시
간주립대 석좌교수)·최근 「세
계적 대학을 위한 전략(Strate
gy for a Global University)」
을 출간함.



▲金潤澤(70년) 經大院卒·대광
출산 회장·양
정전화회 이사
장)·지난 7월
9일 미국 텍사
스주에나 캠퍼스
트 유니버시티



에서 장학재단 운영과 각종 봉
사 활동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음.



▲金鍾희(72년) 美大卒·전주대
교수)·지난 7월 5일부터 12일
까지 전주 프랑스문화원 앙리앙
스프랑스즈 갤러리에서 그래픽
디자인전을 개최함.

▲鄭愛蓮(73년) 音大卒·전남대

KBS·방문진·EBS 이사에 모교 李相禧명예교수 등 선임

한국방송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KBS, 방송문화진흥회
(MBC 최대주주), EBS의 이
사진과 감사 인선 결의를 발표
했다.

KBS 이사로는 金宇哲(61년)
文理大卒·삼성연료재단 연구위
원)·李永德(66년) 文理大卒·前
조선일보 논설위원)·李亨模(7
기 SGS·前KBS 부사장)·金仁
圭(73년) 文理大卒·前KBS 뉴

미디어본부장·본노 설위원)
등은 등 11명이 뽑혔으며, 23
일 대동령의 임명장을 받았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李
相禧(58년) 文理大卒·모교 언론
정보학과 명예교수)등은, 이사
에 李範珠(85년) 大學院卒·동아
대 신방과 교수)·金亨泰(80년)
法大卒·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은 등이 선출됐다.

EBS 이사에는 林尙澤(85년)



李相禧
방문진 이사장



羅亨洙
EBS 감사



金仁圭
KBS 이사



金亨泰
방문진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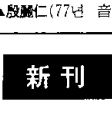
李亨模
KBS 이사



교수·광주 콘
서트 상어즈 대
표)·지난 6월
24일 광주문화
예술회관 소극
장에서 金範
(73년) 音大卒·전남대 교수)·朴
大燮(81년) 音大卒·광주대 교
수)등은 등과 함께 「행복한 아
이나라를 위한 콘서트 상어즈」
제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함.



▲殷熙哲(74년) 音大卒·모교 피
부과학교실 교
수·한국의학교
육학회 용어연
구회)·지난 6월
11일 롯데호텔
에서 카지노스
탄 국립 경제·
경영대학원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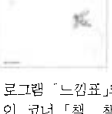


찬영 총장 등 국내외 명사들을
이 그대로 남겨 있다. (실전
문학사·김8,000원)

新刊

■ 지상에 숨겨진 하나

— 玄基榮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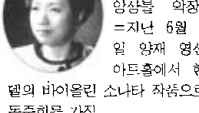


한국 문
화 예술 진
출인 玄基
榮(67년)
장대원
장의 사
적인 소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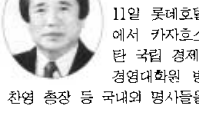
MBC 로
그램 「느낌표」의 독서 캠페
인 코너 「책, 책, 책」 책을
읽습니다. 「선정 도서인 이
책은 한국 현대사의 심장부를
흔드는 서사성과 남도의 대지
위에서 펼쳐지는 서정성이 어
우러져 있다. 제주도를 배경
으로, 가슴 벅찬 유년의 기억
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는 이
작품은 부박한 상업주의 풍조
속에서도 진지하게 문학적 고
무를 이기지 않은 필자의 열정

교수)·지난 6월 30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베토벤,
프랑크와 모차르트, 슈만 등의 작
품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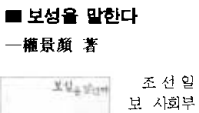
▲朱一薰(77년) 音大卒·美 베대
스대대 교수·
서울아카데미
앙상블 악장)
·지난 6월 5
일 양재 영신
아트홀에서 헨
델의 바이올린 소나타 작품으로



독주회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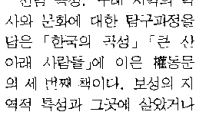
▲權成成(79년) 行大院卒·21세
기 정경연구소
장)·지난 6월
11일 롯데호텔
에서 카지노스
탄 국립 경제·
경영대학원 방



찬영 총장 등 국내외 명사들을
이 그대로 남겨 있다. (실전
문학사·김8,000원)

■ 보성을 말한다

— 權景源 著



조선 일
보 사회부
權景源(86
년) 女
大(大)
기자)가
차의 고
고음 잘
러진 전
남

보성에 대한 책을 펴냈다.
전남 곡성, 구례 지역의 역
사와 문화에 대한 탐구과정을
담은 「한국의 곡성」, 「큰 산
이래 사람들」에 이은 책들은
의 세 번째 책이다. 보성의 지
역적 특성과 그곳에 살았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형성
된 과정 등에 중점을 두고, 지
역 사람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반영하고 있다. (학연문
화사·김14,000원)

社會大卒·민주언론운동시민연
합 부이사장)등은, 감사에는
羅亨洙(66년) 文理大卒·前한국
방송위원회 사무총장)등은
결정됐다.

한행 방송법은 방송문화진
흥회와 EBS 이사의 경우 방송
위가 직접 임명하지만 KBS 이
사는 방송위의 추천으로 대동
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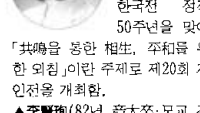
한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에 선임된 한국광고주협회 金
範煥(75년) 新大院卒)삼근부회
장은 18일 언론노조 등과의
갈등을 이유로 사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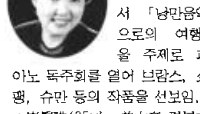
李相禧
방문진 이사

초청, 「한·미간의 대륙 정책 조
율」에 대한 토론회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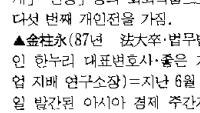
▲李琨柱(80년) 美大卒·모교 감
사)·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캘리
포니아 「물」에서
한국전 정전
50주년을 맞아



「其鳴을 통한 相逢, 李琨柱를 위
한 외침」이란 주제로 제20회 개
인전을 개최함.



▲李賢琦(82년) 音大卒·모교 감
사)·지난 6월
21일 세종문화
회관 소극장에
서 「남양음악
으로의 여행」
을 주제로 피



아노 독주회를 열어 브람스, 쇼
팽, 슈만 등의 작품을 선보임.

▲崔眞珠(85년) 美大卒·경북대
장사)·지난 6월 13~19일 대
구 송아강 회관에서 「섬」 「기
개」 「변명」 등의 회화작품으로
다섯 번째 개인전을 가짐.

▲金柱永(87년) 法大卒·법무법
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좋은 기
업 지배 연구소장)·지난 6월 9
일 발간된 아시아 경제 주간지
「비즈니스위크」가 뽑은 「아
시아의 스타 25인」에 선정됨.

▲李汪奎(7기 AIP·美 프레스턴
대 부총장 겸 재원교수)·지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미
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개최
된 제86차 국제레이온스 대회에
참석함.

▲朴明錫(27기) ACAD·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한국통일안보
학회)·지난 6월 5일 한국언
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참여정
부의 대북정책과 언론의 역할」
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함.

▲金方誌(3기) EPHM·한국보
건정보정책연구원)·지난 6월
16일 모교 보건대학원 강당에서
「건강보험 재정 통합 정책」 등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가짐.

(정리=安興發기자)

協 스트림 앙상블

李鍾協교수 회갑기념 특별연주회

협 스트림 앙상블은 지난
1988년 중앙 스트림 앙상블이
란 이름으로 중앙대 李鍾協
(66년) 音大卒)교수가 창단하
여 꾸준한 연주활동을 해오다
가 1998년 9월 현재의 이름으
로 재창단했다.

그동안 18회의 정기연주회
와 7회의 청소년음악회, 지방
연주회 등을 펼쳐왔으며, 매
년 여름음악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병동점단 문
화관 포스트홀에서 열린 이번
연주회는 李鍾協교수의 회갑
을 기념하여 단원들이 현정하
는 음악회로써 4대의 바이올
린을 위한 콘서트와 앙상블

재즈, 탬고, 칸초레 등 대중
적인 음악을 선보이며, 특별
히 李鍾協가 원리디스의 바이
올린 콘서트와 金鍾奎(83년)
音大入·서울캠퍼스앙상블 음악
감독)등본의 지휘로 연주한
다.

현악앙상블을 사랑하고 아
끼는 순수한 음악인들의 모임
인 협 스트림 앙상블은 협이
뜻하는 화합과 협동정신을 바
탕으로 꾸준한 레퍼토리 개발
과 더불어 살아 숨쉬는 음악을
창조하기 위해 화음의 Harmony,
절음의 Union, 정열의 Passion으로
꾸준히 노력하며 발전해 나
는 단체가 되리라 본다.

이 사

회비납부 출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理事: 2003년 4월 8일~2003년 4월 13일·一般: 2003년 4월 10일~2003년 4월 14일〉

◇社會科學大學

▲김승환(9) ▲조현태(9) ▲황주현(9)

◇自然科學大學

▲이정우(9)

◇看護大學

▲김복순(9)

◇經營大學

▲고정석(9)

◇工科大学

▲김정현(9) ▲김영국(9) ▲박성영(9)

▲구영철(9) ▲권문식(9) ▲권순택(9)

▲김 철(9) ▲김경석(9) ▲김국진(9)

▲김권식(9) ▲김규진(9) ▲김동명(9)

▲김병남(9) ▲김상식(9) ▲김상연(9)

▲김석주(9) ▲김신원(9) ▲김여조(9)

▲김정만(9) ▲김정선(9) ▲김정식(9)

▲김중관(9) ▲김중희(9) ▲김주용(9)

▲김주홍(9) ▲김광순(9) ▲김하재(9)

▲김현진(9) ▲문광순(9) ▲민정석(9)

▲박정호(9) ▲박성빈(9) ▲박인규(9)

▲박주현(9) ▲박준범(9) ▲박준석(9)

▲박광준(9) ▲박태원(9) ▲배병환(9)

▲서상기(9) ▲송승희(9) ▲송지오(9)

▲송효상(9) ▲신동식(9) ▲신현국(9)

▲신훈철(9) ▲상병규(9) ▲안경수(9)

▲안기원(9) ▲안철호(9) ▲양영일(9)

▲염사연(9) ▲오재환(9) ▲오병욱(9)

▲오성철(9) ▲오승우(9) ▲오정석(9)

▲우영하(9) ▲우민성(9) ▲우성삼(9)

▲유용선(9) ▲유우석(9) ▲이 동(9)

▲이 절(9) ▲이계수(9) ▲이광노(9)

▲이성민(9) ▲이동환(9) ▲이신일(9)

▲이승관(9) ▲이영재(9) ▲이용우(9)

▲이원철(9) ▲이원철(9) ▲이정구(9)

▲이종각(9) ▲이종대(9) ▲이종현(9)

▲이경만(9) ▲이준식(9) ▲이충구(9)

▲이현구(9) ▲이형석(9) ▲이흥배(9)

▲장영남(9) ▲장학수(9) ▲전광택(9)

▲정현환(9) ▲정병수(9) ▲정상근(9)

▲정성현(9) ▲정연세(9) ▲정태현(9)

▲재재현(9) ▲조동현(9) ▲전병삼(9)

▲재만은(9) ▲최 인(9) ▲최영덕(9)

▲최재철(9) ▲최창영(9) ▲표상수(9)

▲한대림(9) ▲한용순(9) ▲홍효식(9)

▲황정일(9) ▲황정규(9)

◇農業生命科學大學

▲김남일(9) ▲김동훈(9) ▲김사일(9)

▲김정일(9) ▲김정현(9) ▲김주영(9)

▲김진희(9) ▲박순희(9) ▲박정준(9)

▲박진환(9) ▲심연조(9) ▲오세진(9)

▲유태진(9) ▲이규순(9) ▲이남식(9)

▲차성준(9)

◇文理科學大學

▲김현익(9) ▲김경동(9) ▲김기주(9)

▲김부하(9) ▲김성갑(9) ▲김승희(9)

▲김영환(9) ▲김우철(9) ▲김종희(9)

▲민병현(9) ▲박희준(9) ▲변효선(9)

▲서광석(9) ▲서의관(9) ▲신동호(9)

▲안대수(9) ▲오재환(9) ▲유현준(9)

▲육복기(9) ▲윤병준(9) ▲윤상철(9)

▲윤재현(9) ▲이광준(9) ▲이규원(9)

▲이대승(9) ▲이우진(9) ▲이성환(9)

▲이성태(9) ▲이종범(9) ▲이현조(9)

▲임와신(9) ▲임희섭(9) ▲장준성(9)

▲정하규(9)

▲최홍동(9) ▲하영석(9) ▲하영준(9)

▲홍두희(9) ▲홍종화(9)

◇美術大學

▲박노수(9) ▲박현철(9) ▲최만민(9)

▲홍나희(9)

◇法科大學

▲가재환(9) ▲장 동(9) ▲김정식(9)

▲김홍식(9) ▲강우영(9) ▲김태준(9)

▲김홍철(9) ▲구자춘(9) ▲권병일(9)

▲권순철(9) ▲권오준(9) ▲권재진(9)

▲김진호(9) ▲김경환(9) ▲김기인(9)

▲김도선(9) ▲김동원(9) ▲김병윤(9)

▲김상희(9) ▲김석기(9) ▲김성기(9)

▲김세준(9) ▲김승규(9) ▲김승희(9)

▲김진택(9) ▲김영우(9) ▲김용호(9)

▲김석주(9) ▲김재(9) ▲김진준(9)

▲김재기(9) ▲김정술(9) ▲김종국(9)

▲김중삼(9) ▲김중웅(9) ▲김진억(9)

▲김광준(9) ▲김재호(9) ▲김려남(9)

▲김현철(9) ▲김승규(9) ▲나재규(9)

▲노승환(9) ▲노신영(9) ▲문영길(9)

▲문익삼(9) ▲문종주(9) ▲박민호(9)

▲박주용(9) ▲박종도(9) ▲박승우(9)

▲박원진(9) ▲박종덕(9) ▲박정택(9)

▲박준서(9) ▲박민수(9) ▲배 도(9)

▲배상오(9) ▲변동길(9) ▲변하남(9)

▲서승환(9) ▲서정석(9) ▲서정선(9)

▲손종석(9) ▲송영식(9) ▲송승식(9)

▲송준재(9) ▲송진준(9) ▲신경환(9)

▲신정환(9) ▲신정호(9) ▲신규철(9)

▲신길룡(9) ▲안재영(9) ▲안종택(9)

▲양 동(9) ▲양인환(9) ▲오규원(9)

▲오정환(9) ▲오준남(9) ▲유정준(9)

▲유종택(9) ▲유정준(9) ▲윤교준(9)

▲윤원식(9) ▲윤원영(9) ▲윤종근(9)

▲이진기(9) ▲이경호(9) ▲이덕도(9)

▲이복영(9) ▲이신우(9) ▲이수길(9)

▲이신식(9) ▲이영남(9) ▲이우영(9)

▲이재기(9) ▲이재식(9) ▲이재희(9)

▲이정민(9) ▲이정택(9) ▲이천수(9)

▲이현동(9) ▲이호준(9) ▲임병준(9)

▲이승환(9) ▲임종진(9) ▲임태우(9)

▲장준호(9) ▲장정호(9) ▲장재철(9)

▲전진기(9) ▲정우영(9) ▲정규영(9)

▲정대관(9) ▲정우진(9) ▲정배준(9)

▲정희호(9) ▲조상훈(9) ▲조승환(9)

▲전철목(9) ▲채병민(9) ▲권현주(9)

▲최현희(9) ▲최준호(9) ▲홍기영(9)

▲홍석희(9) ▲홍성희(9) ▲홍이희(9)

▲황의만(9) ▲황현준(9)

◇師範大學

▲강민준(9) ▲곽민선(9) ▲구광모(9)

▲권정자(9) ▲김동길(9) ▲김하준(9)

▲박승관(9) ▲박영오(9) ▲박종국(9)

▲박희선(9) ▲서병웅(9) ▲서해정(9)

▲신상택(9) ▲윤덕준(9) ▲윤용혁(9)

▲이석우(9) ▲이성민(9) ▲이종택(9)

▲이민환(9) ▲이현희(9) ▲임경환(9)

▲임창준(9) ▲정문성(9) ▲조 훈(9)

▲지태진(9) ▲차준영(9) ▲최정준(9)

◇商科大學

▲강우현(9) ▲권준희(9) ▲권오준(9)

▲김태희(9) ▲김우철(9) ▲김병태(9)

▲김경모(9) ▲김희범(9) ▲김병연(9)

▲김병기(9) ▲김원길(9) ▲김문재(9)

▲김진준(9) ▲김정현(9)

▲나광복(9) ▲나재택(9) ▲류종목(9)

▲문태원(9) ▲이경조(9) ▲박복희(9)

▲박영우(9) ▲박준조(9) ▲박영조(9)

▲박정식(9) ▲박정호(9) ▲박종석(9)

▲박종대(9) ▲박태하(9) ▲배갑순(9)

▲변원욱(9) ▲이승원(9) ▲서주성(9)

▲서태식(9) ▲서하진(9) ▲송상석(9)

▲송민덕(9) ▲송동현(9) ▲신박영(9)

▲신세갑(9) ▲신인식(9) ▲신병재(9)

▲심 훈(9) ▲심재영(9) ▲안경태(9)

▲안태호(9) ▲안홍지(9) ▲우순규(9)

▲우원식(9) ▲우진복(9) ▲우석훈(9)

▲유창희(9) ▲유창목(9) ▲윤세국(9)

▲이규성(9) ▲이대원(9) ▲이동원(9)

▲이성철(9) ▲이수익(9) ▲이순하(9)

▲이영규(9) ▲이영석(9) ▲이봉환(9)

▲이원덕(9) ▲이진배(9) ▲이정복(9)

▲이정상(9) ▲이정환(9) ▲이형철(9)

▲이희준(9) ▲전문준(9) ▲전정규(9)

▲정병환(9) ▲전순영(9) ▲조갑주(9)

▲조병환(9) ▲조현환(9) ▲조승희(9)

▲지상진(9) ▲지정수(9) ▲최정석(9)

▲최남환(9) ▲최신욱(9) ▲최성식(9)

▲최정환(9) ▲최정길(9) ▲최대규(9)

▲추수욱(9) ▲최병하(9) ▲홍현우(9)

▲홍성주(9) ▲홍승수(9) ▲황동규(9)

▲황재철(9) ▲황정연(9)

◇獸醫科大學

▲김창윤(9) ▲이종희(9) ▲이형우(9)

▲장병표(9)

◇藥學大學

▲공영식(9) ▲권 박(9) ▲김금림(9)

▲김상철(9) ▲김진우(9) ▲김현주(9)

▲민주홍(9) ▲박민기(9) ▲박승규(9)

▲양준호(9) ▲이광수(9) ▲이우영(9)

▲이원희(9) ▲최병식(9) ▲최양준(9)

▲최원환(9) ▲최원식(9)

◇音樂大學

▲백나호(9) ▲정은숙(9) ▲조창연(9)

◇醫科大學

▲김세철(9) ▲고건성(9) ▲김광원(9)

▲김광현(9) ▲김동우(9) ▲김병국(9)

▲김병환(9) ▲김성택(9) ▲김세경(9)

▲김민기(9) ▲김용락(9) ▲김우근(9)

▲김중선(9) ▲김주현(9) ▲김정우(9)

▲박남진(9) ▲박명환(9) ▲박영하(9)

▲배대경(9) ▲서경환(9) ▲신대원(9)

▲송병우(9) ▲이영배(9) ▲신정재(9)

▲이희원(9) ▲유병환(9) ▲이계환(9)

▲이문호(9) ▲이우준(9) ▲김진환(9)

▲이필우(9) ▲장본린(9) ▲최 훈(9)

▲최정진(9) ▲최현희(9) ▲최규원(9)

▲한기호(9) ▲한태택(9) ▲한지성(9)

▲홍성태(9) ▲홍정희(9) ▲홍정운(9)

▲강구현(9) ▲강근우(9) ▲김 원(9)

▲김기현(9) ▲김병진(9) ▲김용준(9)

▲김동철(9) ▲김주현(9) ▲김정환(9)

▲김현철(9) ▲김재준(9) ▲김재준(9)

▲민병덕(9) ▲박동욱(9) ▲박준영(9)

▲박병문(9) ▲배우준(9) ▲부성환(9)

▲서재현(9) ▲서근(9) ▲이성호(9)

▲양 훈(9) ▲양영태(9) ▲이미재(9)

▲이석우(9) ▲이윤상(9) ▲이정호(9)

▲이진근(9) ▲이정준(9) ▲이정호(9)

▲정정수(9) ▲정기근(9) ▲정종선(9)

▲조종만(9) ▲최낙준(9) ▲한광수(9)

▲홍정환(9)

◇大學院

▲고창수(9) ▲남익우(9) ▲이 준(9)

▲임대원(9) ▲최석문(9) ▲황성규(9)

◇經營大學院

▲김임식(9) ▲이정복(9) ▲이찬하(9)

▲조정희(9) ▲최성훈(9)

◇保健大學院

▲손재영(9)

◇司法大學院

▲이원섭(9)

◇新聞大學院

▲박찬호(9) ▲김태문(9)

◇行政大學院

▲김광립(9) ▲김병준(9) ▲김세욱(9)

▲윤인근(9) ▲이준웅(9) ▲이치열(9)

▲조성근(9) ▲차유배(9) ▲최문재(9)

▲황두영(9)

◇環境大學院

▲이광재(9)

일 반

◇人文大學

▲김국현(9) ▲김범수(9) ▲김영현(9)

▲김용호(9) ▲김현규(9) ▲김희갑(9)

▲박순문(9) ▲박현철(9) ▲박형민(9)

▲서성민(9) ▲오대서(9) ▲윤상익(9)

▲이상원(9) ▲이세영(9) ▲이숙희(9)

▲이희원(9) ▲장낙도(9) ▲정지석(9)

▲조철원(9) ▲차준영(9) ▲최동규(9)

▲한혜원(9) ▲황성진(9)

◇社會科學大學

▲김대민(9) ▲강은모(9) ▲강종표(9)

▲고재호(9) ▲김기수(9) ▲김성목(9)

▲김일표(9) ▲김재영(9) ▲김태식(9)

▲김주철(9) ▲김희철(9) ▲박동영(9)

▲박지영(9) ▲박유철(9) ▲서경원(9)

▲배대경(9) ▲서경환(9) ▲신대원(9)

▲송병우(9) ▲이영배(9) ▲신정재(9)

▲이희원(9) ▲유병환(9) ▲이계환(9)

▲이문호(9) ▲이우준(9) ▲김진환(9)

▲이필우(9) ▲장본린(9) ▲최 훈(9)

▲최정진(9) ▲최현희(9) ▲최규원(9)

▲한기호(9) ▲한태택(9) ▲한지성(9)

▲홍성태(9) ▲홍정희(9) ▲홍정운(9)

▲강구현(9) ▲강근우(9) ▲김 원(9)

▲김기현(9) ▲김병진(9) ▲김용준(9)

▲김동철(9) ▲김주현(9) ▲김정환(9)

▲김현철(9) ▲김재준(9) ▲김재준(9)

▲민병덕(9) ▲박동욱(9) ▲박준영(9)

▲박병문(9) ▲배우준(9) ▲부성환(9)

▲서재현(9) ▲서근(9) ▲이성호(9)

▲양 훈(9) ▲양영태(9) ▲이미재(9)

▲이석우(9) ▲이윤상(9) ▲이정호(9)

▲이진근(9) ▲이정준(9) ▲이정호(9)

▲정정수(9) ▲정기근(9) ▲정종선(9)

▲조종만(9) ▲최낙준(9) ▲한광수(9)

▲홍정환(9)

▲김성택▲김성환▲김수환▲
▲김영환▲김종현▲김진규▲
▲김일갑▲김종엽▲김준호▲
▲김중주▲박만영▲노승민▲
▲도환▲박정호▲박은현▲
▲박인철▲박정호▲백은공▲
서 구▲송수식▲송철호▲
▲안병근▲안용태▲양용식▲
▲양희준▲유국림▲우정욱▲
▲우정옥▲원봉준▲유병문▲
▲유병진▲유우동▲윤종태▲
▲이경제▲이명태▲이근호▲
▲이기철▲이동태▲이상수▲
▲이병구▲이병달▲이성호▲
▲이성환▲이성환▲이성환③▲

▲이|상갑(25) ▲이|
▲이|▲복(8)

①임완수⑥②장윤태⑥③장희정⑥
 ④전봉근⑪⑤장광호⑪⑥정주용⑪
 ⑦정기재⑩⑧정석현④⑨정일기⑤
 ⑩정환진④⑪조리산②⑫조영진⑤
 ⑬조용호④⑭조인호②⑮조운근⑨
 ⑯전광진⑨⑰최영주⑤⑱최오길⑤
 ⑲최인호③⑳최종원⑬㉑최종일⑬
 ㉒하정우⑬㉓안구남⑬㉔허남⑬
 ㉕하승태㉖홍건선㉗홍성열㉘
 ㉙홍기⑩㉚홍진④

◇최고산업전략과정

㉠감상대(臺) ㉡감소성(聲) ㉢고귀성(聲)
 ㉣공소할(呼) ㉤감동권(權) ㉥감상도(道)
 ㉦감상할(呼) ㉧같이모(모) ㉨감흥(興)
 ㉩같이경(경) ㉪박동시(時) ㉫박속곡(曲)
 ㉬박인사(舍) ㉭박형국(國) ㉮석도길(길)
 ㉯석용정(亭) ㉰숙기승(승) ㉱선현(顯)
 ㉲심재정(亭) ㉳양경진(進) ㉴위재관(館)
 ㉵유각곡(곡) ㉶순준출(出) ㉷인구조(조)
 ㉸이상원(園) ㉹이상할(呼) ㉺이영균(均)
 ㉻이영산(山) ㉼이정수(守) ㉽이현일(一)
 ㉾임출도(道) ㊀임금순(順) ㊁이조성(城)
 ㊂조원할(呼) ㊃이정중(中) ㊄회철순(順)
 ㊅차재오(오) ㊆회경시(時) ㊇흥미회(會)
 ㊈활용화(화) ㊉이남하(하)

△국기정신교정

① 권영희 ② 김 현 ③ 김덕열 ④
 ⑤ 김동천 ⑥ 김복득 ⑦ 김성정 ⑧
 ⑨ 김성조 ⑩ 김시원 ⑪ 김장곤 ⑫
 ⑬ 김충용 ⑭ 남상진 ⑮ 배운도 ⑯
 ⑰ 설용수 ⑱ 송성장 ⑲ 신재기 ⑳
 ㉑ 유재발 ㉒ 윤기병 ㉓ 이경우 ㉔
 ㉕ 이경준 ㉖ 이근인 ㉗ 이영태 ㉘
 ㉙ 이정주 ㉚ 이백형 ㉛ 이필우 ㉜
 ㉝ 이홍주 ㉞ 박찬화 ㉟ 정득진 ㊱
 ㊲ 정송하 ㊳ 정미조 ㊴ 조명구 ㊵
 ㊶ 조원필 ㊷ 최광준 ㊸ 최기문 ㊹
 ㊺ 최영기 ㊻ 한훈수 ㊼

· 리프스 $\otimes$ · 리프스 $\otimes$

도시환경과위정책과정, 공기
업과급경영자과정, 보건의료정
제최고관리자과정, 정보통신방
송정책과정, 패션산업최고경영
자과정 회비 납부하신 분은 다
음 중에 게재합니다

월 계 : 65,004,000원
총 계 : 128,759,144원
+13,000\$

동문의 소리

아버지로서 또 다른 역할 있었다

邊炳文(76년 大學院卒)경택대 겸상정보학부 교수



큰 딸아이의 성장과 더불어 나는 가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때가 있다. 딸아이는 올해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어 비로소 재정적으로 독립하게 됐다. 어느 날 저녁 첫 월급을 받았다고 내게 작은 선물하라는 해 주었다. 어버이날에도 꽤 근사한 선물을 받았다. 또 한번은 고급스러운 보이는 티셔츠를 하나 사다 주었는데, 그것은 우리 부녀지간에 좀 과한 인정을 하듯 사먹었던 다음날 화해의 뜻으로 준 선물이었다.

어른이 된 이후집안 장남으로

서, 가장으로서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는 긴장감이 늘 내 의식의 한쪽을 눌러왔다. 그런데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가진 자식이 부모님 나를 챙겨주니, 참 하나를 내려놓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얼마전 지나간 내 생일에 딸아이의 선물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하게 했다.

1월에 취임한 후 많지 않은 월급에서 4번씩이나 아버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지나 않지 않았을 것 같았다. 전화해서 오늘

은 그만 두라고 말할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이내 그만 두고 말았다. 다소 힘이 들더라도 아버지 생일도 기억하고,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가르쳐야 할 것 같아서였다.

대신 '부모에 대한 효가 딸아이에게 심리적, 물질적으로 압박감이 되지 않고 즐거움이 되게 할 수는 없을가'라고 생각해 보았다. 사실 장성한 자식과는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이제까지 해왔던 것

처럼 자식을 계속 보호하거나, 그의 풍인 삶의 점을 대신해 줄 생각은 없다. 그리고 내 할 일 다했으니 이제부터는 자식 스스로 받아보자 해도 따라줄 것 같지도 않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딸아이 삶의 도장에서 설만한 그들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좌절할 때 용기를 주고, 방황을 잃고 헤맬 때 길을 안내해 주며, 언제나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능력을 인정해 주어야겠다.

그러려면 우선 딸아이가 앞으로

로도 아버지를 좋아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간섭하고, 다루고, 질책하는 것부터 버려야. 성숙한 아버지로서의 역할, 그것은 새로운 도전이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이라 세련되게는 못하겠지만 노력하면 내 아이 하나가 뛰어갈 만하다. 그들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나 나는 아버지로서 해야 할 또 다른 역할이 있었다.

친절시민이 유별나지 않은 사회

朴晉範(95년 人文大學)KBS 프로듀서



나처럼 성질이 급한 사람에겐 반송의 배려 중 하나가 그 위험만큼이나 피드백이 빨리 온다는 것이다.

방송을 내보낸 다음날 출근길에 주위사람들이 톡톡 던지는 소감들, 프로그램 기사들을 뜨겁게 달구는 네티즌의 의견들 등,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포한 것도 많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얼마전까지 연출을 맡았던 「좋은 나라 운동본부」란 프로그램은 경우가 조금 다르다. 특히 프로그램 중 「베스트 친절시민을 찾아라」란 코너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기여가 게거품을 물고 만다.

3년 반 동안 방송을 하면서 1백80명에 가까운 베스트 친절시민을 배출한 이 코너는 우선 친절시민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제작진이 몰래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한다.

제작진은 철저히 몰래 카메라를 활용, 친절도에 대한 검증은 한 후 이를 통보하면 친절시민으로 선포하면서 금메달을 달아준다. 이 코너의 핵심은 친절검증이며 철저하게 주인공 및 주위 사람들이 촬영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보안유지가 가장

중요하고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만약 주인공이 눈치를 깨버리면 가식된 행동을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이 코너 촬영을 시작할 때는 「기도하는 마음」이 된다. 「오늘도 무사히」가 아닌 「오늘도 제발 친절하게」로 마음속 주문을 건다.

사람이란 기계가 아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주인공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른다. 실제로 촬영을 하게 된 날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했던 어떤 친절주인공은 검증과정에서 짜증내는 모습을 보

여 중에서도 촬영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적도 있었다. 주인공의 짜증 한마디에 촬영준비를 위해 쏟아 부은 일주일간의 노력과 수백만원의 제작비는 바로 물거품이 돼버리는 것이다.

반면에 검증도우미의 어려운 부탁에 섰듯 「그리죠 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볼래 지켜보는 순간 정말 일주일의 피로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시청자들이야 친절주인공이 보여주는 바다 큰 친절에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대하는 제작진의 입장은 「그게 어난데」라는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이다. 특히 친절시민의 친절도가 유난스러울 경우 시청자들이 보내는 의혹의 시선도 더욱 강렬해진다. 난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본다. 「좋은 나라란 어떤 것일까? 친절시민만 많아진다고 좋은 나라가 될 것인가. 친절시민들의 행동이 전혀 유별나게 보이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가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나라가 아닐까.

「웃으며 살자」고 하소연 하고파

池英在(67기 EPHPM)서울복지원 원장



사오정(45살)이나 오복도(56살)나 하며 「나이값」이 터무니없이 허락하고 있는 어수선한 시대에 조지훈의 시 「낙월」의 첫 구절인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맞이하랴」를 인용한 어느 정치인의 독백이 집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여자 나이 50대 중반에 이르러 있는 나는 사무실 문밖의 「청춘」이란 시에 위로받으며 「주말살이」를 즐기며 세월을 맞이하랴」라는 콤플렉스에 시달리

고 있다고 할까?

세대를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된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이라 했으니까, 의 철학자 키케로는 「우리에게는 경험과 지혜가 있다」고 경륜을 얻고자 시켰는데, 왜 우리 사회는 20~30대의 인터넷 정서에 무조건 밀리면서 거칠어진 손아래의 수고와 빚바래고 부끄러워한 성어가 무색하게 되는 사고가 정당화되는지 되묻고 싶다. 이러한 나의 심사는

과연 새로운 것과 변화를 우선하는 패러다임에 저항하고 있는 것일까?

「사람은 목적이 있으나 길이 없다」란 말이 있다. 오늘날 젊은이를 세대의 특징은 다양성, 유연성, 조화성, 창조성 등의 긍정적인 사고일진대, 이 시대를 사는 40, 50대 세대들과 함께 어우러져 좀더 원만하게 감싸줄 수는 없는지 아쉬운 마음이 든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인더 데

레사 수녀는 같이 일할 사람을 택할 때 「무엇이든 잘 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든 잘 살 수 있는지」, 「어려한 경우에도 웃을 수 있는지」를 조건으로 삼았다고 한다. 삶이 어려워질수록 다름은 심해지고, 오히려 이, 없는 이해관계를 정점으로 삼고 명분을 방패로 삼는 무성으로 결국 모두에게 상처만 남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 있는 우리는 인간, 시간, 공간, 이웃만, 물

장만, 친구만, 세대間에서 間, 즉 여유가 상실된 살벌하고 각박한 분위기에서 「요술」이라는 어색한 입 모양을 지으면서라도 함께 더불어 「웃으며 살아가자」고 하고연하고 싶다. 「웃으면 주름살이」는 다는 괴변과 아이러니는 더 이상 우리와 사회를 괴롭히지 않을 때가.